OCT 13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39 1981년10월8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October 8,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캐나다 외환은행 개점

이미 적금 $100만돌파
블루어 토요사무소 설치

캐나다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은행 캐나다한국외환은행이 6일 정식개점했다. 이날 상오10시 정춘택 한국외환은행장 신, 구캐나다 외환은행장등 은행 관계자들과 이상훈 토론토총영사가 2 퍼스트・캐네디안・플레이스(킹・스트릿×욕・스트릿 코너)11층에 자리잡은 외환은행의 개점테이프를 끊는 순간 샴페인을 터트려 역사적 개점을 기념했다. 토론토 한국외환은행의 사무소가 진출한지 11년만의 결실이었다. 이에앞서 세계 4번째의 자(子) 회사인 캐나다 외환은행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서 온 정 은행장등은 개점 때의 관례인 금고 테이프를 끊어 개폐식을 가졌다. 정 은행장은 개점사에서 "외환은행은 한국과 캐나다의 무역증진과 경제협력, 4만 교민의 경제적 성장 을 지원키 위해 설치되는 것이므로 교민 각자가 출자한 것으로 생각,많이 아끼고 키워달라"고 말했다. 이 총영사는 "한국계 은행의 캐나다 진출은 국력 신장의 증거"라고 치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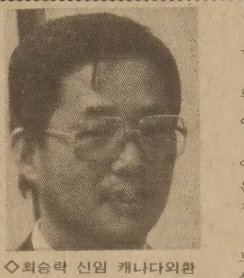
◇캐나다한국외환은행의 개점 테이프가 끊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이장우 캐나다은행장, 함병섭 코리아타운번영회장, 최승락 LA지점장, 정춘택 한국외환은행장, 이상훈총영사, 홍세표 뉴욕주재 이사.

전날인 5일 밤 로열・욕 호텔 어퍼・캐룸에서 열린 전야제 리셉션에는 임페리알・뱅크・오브・컴머스(C.I.B.C.)회장 해리스, 노바・스코셔은행 회장 리차씨등 거물급을 포함, 은행계인사 1백여명, 캐나다무역업자등 실업인 130명, 교포 50여명 등 약 280명이 모여 개점을 토픽으로 대화를 교환, 외환은행의 탄생을 축하했다.

박인순 한인회장을 비롯, 한 개점식에 참가한 교포들은 이날 기념으로 구좌를열어 부문별로 거래1호를 기록했다.

박회장은 적금, 한국학과 후원재단은 정기예금, 현대그룹 토론토지사는 커랜트 어카운트(기업당좌), 이규현 주캐나다대사는 체킹・어카운트에서 각 1호였다.

이대사는 이날 오타와에이서 비행기로 올 예정이었으나 일기불순으로 결항,


◇최승락 신임 캐나다외환은행장(1개월후 부임).

불참했다.

이밖에 임안남씨 부부가 축하객이 아닌 순수고객으로 찾아와 적금등을 들었다.

이 부부는 이날"우리 은행이 이땅에서 문을연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개업날자를 손꼽아 기다렸다"고 말했다.

하객중에는 멀리 로스엔젤레스에서온 미국 최대의 동양계식품 회사 D・Y Food(동양식품)의사장 강문웅씨가 보였다.

강씨는 거금 5만달러(미화)를 정기예금, 외환은행 인사들을 감격 시켰다.

73년까지 토론토에서「동양식품」을 경영한 강사 은 이장우 캐나다외환은행장과 막연한 사이이다.

한국외환은행은 70년에 토론토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으나 은행법상 영업을 할 수가 없었다. 캐나다연방정부는 작년12월 캐나다 은행법을 개정, 문호를 열어주어 외환은행 사무소는 은행으로 승격한 첫 3개은행 그룹에 포함됐다.

개점 2일째인 7일현재적금액은 약1백만달러, 체킹・어카운트는 50개, 저축구좌는 10개 정기예금은 5구좌를 기록,"외국에서 개업하는 은행으로는 퍽 고무적"이었다고 이주신전무는 말했다.

이같은 현상에 자극받아 외환은행은 2~3주후 블루어・스트릿에 간이창구를개설, 토요일마다 적금, 예금등을 수납할 계획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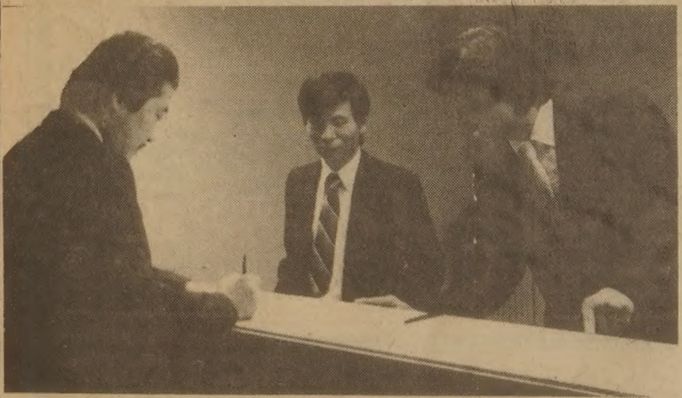
외환은행은 원래 내년 3개월째 한인상가 블루어・스트릿에 지점을 낼 예정이었다.

현직원 8명의 이은행 개점시간은 평일 9~4시이며 긴급예금의 경우 4~5시사이에 접수하나 이 금액은 다음날 분으로 계산한다. 점심시간에도 수납직원은 근무한다.

대부담당관은 제임스・길모어씨이다.

한편 이달안으로 부임예정인 최승락(48)신임 캐나다 외환은행장은"새로 개점하는 은행의 신임행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토론토는 처음이나 성심성의껏 노력, 이장우행장이 쌓은공적을 더욱 빛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외환은행 설립에 공이큰 현 이 은행장은 외환은행 LA지점장으로 전임한다. LA


◇박인순 한인회장이 외환은행 적금에 가입, 적금1호가 되고 있다. 앞은 오진관 연수대리, 김남수과장(오른쪽).

2백만弗어치 상당 稀貴本만 훔쳐팔아

콜럼비아 대학원에 재학중인 존・파파나스타시우가 한 영국대학 도서관에서 2백만 달러에 달하는 도서 희귀본을 훔친혐의로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지난2일 파파나스타시우가 훔친도서 2백67권중 4권을 책방에 판매할 때 현장에서 체포됐다.

분실된 도서는 대부분 회수됐다.

각조 타이틀 건 8강전
몬트리얼도 프로야구 예선전끝나

NL西部組 다저스對애스트로즈
NL東部組 액스포즈對 필리즈
AL西部組 에이즈 對 로열즈
AL東部組 브루어즈 對 양키즈

메이저리그 야구의 정규씨즌이 지난주말 막을내리고 6일부터는 디비전 타이틀을 두고 4개 디비젼(조)의 8개팀이 각축전을 벌인다.

내쇼날 리그 서부조에서는 전반씨즌 승자 LA 다저스와 후반 씨즌 승자 휴스턴 애스트로즈가 서부조 챔피언쉽 쟁탈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6일 오후5시15분 휴스턴 애스트로돔에서 첫 게임이 벌어진다.

디비전 타이틀 결정전은 5전3선승팀이 이기도록 돼있다.

내쇼날 리그 동부조는 전반씨즌 승자 필라델피아 필리즈와 후반씨즌 승자 몬트리얼 엑스포스가 7일 오전10시 몬트리얼에서 디비전 타이틀결정전을 시작한다.

아메리칸 리그 서부조는 오클랜드 에이즈와 캔사스시티 로열즈가 6일부터 디비전 챔피언쉽 결정전을 시작하는데 5일의 2게임중 캔사스 시티가 한번만 더 이기면 캔사스 시티가 후반씨즌 승자가 된다.

한편 아메리칸 리그 동부조는 전반씨즌 승자 뉴욕 양키즈와 후반씨즌 승자 밀워키 브루어즈가 7일 밀워키에서 디비전 타이틀 결정전을 시작한다.

4개조의 챔피언 결정전은 늦어도 11일까지는 끝나고 각조의 챔피언팀 4강이 결정된다.

이들 4강은 다시 리그 챔피언 타이틀 게임을 가지며, 그 결과 2강이 탄생하면 이 두팀이 월드 씨리즈 챔피언쉽을 놓고 용호상박전을 벌이게 된다.

미사일등 戰略무기

蘇聯,서방보다4배앞서
英외무차관, 소련은 숫자낮춰 역선전해와

〈런던-UPI〉영국의 한 고위관리는 소련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폭격기 면에서 미국과 그 서방 동맹국보다 4배나 우세하다고 2일 주장했다.

영국의 험프리 애킨스 외무차관은 소련은 9백개의 장거리 미사일과 1천7백50개의 핵폭탄을 적재한 폭격기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숫자를 조작, 마치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력이 더 우세한것처럼 허위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國庫5천만弗 낭비 蘇, 석유성次官파면

〈모스코바-AP〉 소련정부당국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5천만달러를 낭비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련석유성차관 에릭・카리노프를 파면시켰다고 사회주의자 산업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카리노프가 석유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기술을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국고금만 낭비했다는 소련공산당의 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카리노프가 외국에서 사들인 5천만달러의 장비는 녹이슬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大洪水 千5백명死亡

〈카트만두, 네팔-UPI〉30년만에 보는 최악의 홍수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 1천5백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5일 이곳신문이 보도했다.

지난달 30일부터 네팔에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홍수로 돌변, 산하를 휩쓸고 있는데 계속쏟아지는 비로 사상자는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駐덴마크 이란公館員 政治的 망명을신청

〈코펜하겐-UPI〉 덴마크 외무성은 코펜하겐주재 이란 1등서기관 호세인 모이니가 덴마크에 정치적망명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모이니는 워싱턴에서 5년간 근무를 마친후 1980년 코펜하겐으로 전근왔다.

카나다産 천연개스 南加州에 直送키로

카나다산 천연개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가주에 직송된다.

써던캘리포니개스주식회사는 앞으로 하루 2억4천만입방피트의 카나다 천연개스가 남가주에 공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이 개스회사가 남가주에 공급하는 전체개스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이다.

남가주에 카나다산 천연개스가 공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4-1129
534-1120
5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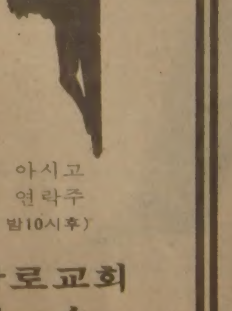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삼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찾습니다

윤전기및 인쇄용 카메라 기술자및 기술배우실분 구합니다.

연락처 : 한국일보사
전 화 : 533-2361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에드몬톤장로교회
EDMONT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끓자 (시편95 : 6)

예배시간 : 주일낮예배 : 주일낮1시30분
주일저녁 찬양예배 : 주일저녁7시30분
수요일성경공부 : 수요일저녁7시30분
토요기도회 : 토요일저녁7시30분
교회주소 : 1111E-109 AVE.
EDMONTON, ALBERTA
(403) 426-1596
목 사 관 :#6 4224-29 AVE.
EDMONTON, ALBERTA
(403) 463-2075 관 : #6

●안내 : 에드몬톤으로 이사 오시는 분이나 또 이곳 사정을 아시고 싶은 분은 전화 : (403) 424-2549 서재승 목사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읍니다. (요전화 : 오전9시전, 밤10시후)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에드몬톤장로교회
위임목사 서 재 승

인벤토리 회사
개업안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교민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위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소생은 도매상과 소매상에서 쌓은 경험과 치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인벤토리회사를 신규 운영하게 되었는바 교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공휴일, 주야불문하고 신속정확한 계산과 성실로 봉사코자하오며 우선 신문지상을 통해 개업인사를 드립니다.

개업일 : 1981년 10월1일
회사명 : 트러스티 인벤토리 SERVICES CO.
전 화 : 532-7741

호 세 환 배상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피살당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오른쪽 의자밑에 쓰러져 있다. 반군들의 급작스런 공격후 대통령 경호원들이 우왕좌왕 하고있다.

암살의 그림자는 77년부터 자기 국민들도 점차 증오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죽음의 그림자는 이미 77년부터 드리워졌다.

사다트가 77년11월 이스라엘과 역사적 평화협정을 맺고, 이스라엘 국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부터 주변의 대부분 아랍국가들과 PLO는 사다트를 증오의 눈으로 보고, 보복의 위협을 공공연히 해왔다.

이락의 바그다드 방송은 "사다트를양같이살해하자"고 전 아랍국가 청취자들에게 호소했고, 하페즈·아사드 시리아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국민들은 "사다트, 신을 배반한 자, 이집트국민들이여, 당신들의 대통령을 축출하라"고 아우성쳤다.

사다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국민들이 항구적인 전쟁상태와 점점 가중되는 경제불황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집트국민들은 평화가 번영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에 빼앗긴 시나이반도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미국의 엄청난원조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지난 4년간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비타협적 태도에 불구, 평화의 댓가로 이집트의 양보가 점점 더 많아지자, 이집트국민들은 환상에서 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사다트는 정책을 변경하지 못했고, 82년 이스라엘로 부터 시나이반도를 반환받을 때까지 그자 선택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했다. 그로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폐기할만한 구실을 만들 수 없었다.

평화협정에 성공한 후 사다트는 점차 중대되는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강압정책을 사용했다. 이러한 사다트의 정책은 제일 먼저 야당인 우익 내셔널·유니온·프로그레시브·파티(당)에게 가해졌다. 그해 그당의 많은 간부들이 구속됐다.

사다트 정부에대한 진짜 위협은 합법적이고 조직화된 지식층의 정적에게서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아랍세계처럼 대중의 불만은종교를통해 나타났다. 골수 교회도 그룹이 그 대표적으로 왕성히 발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단체들은 지하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보다도 더 견고하게 조직되고, 무기를구입할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조직이 군대에 까지도 스며들어 이번 사다트 암살을 도모할수 있었다는데 있다.

최근 그들조직의 발단은 대학에서부터 시작됐다. 오래전에 설립된"회교형제애"(Muslim Brotherhood)조직과 아울러 상당히 많은 급진 이슬람 단체들이 현재 에집트에 독버섯 처럼 자라고 있다.

그들의 중강된힘은 지난 수년동안 에집트 국민의10%를 차지하는 에집트 콥틱 크리스천그룹과의 수많은 충돌에서 여실히 보여진다.

이와같은 충돌은 콥틱크리스천그룹을 급진적으로 변모시켜 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 콥틱반대파들은 회교도 그룹의 반대파들보다는 온건했다.

사다트는 콥틱최고 지도자 쉐노우다 3세로부터 인정을 받지못하자 8명의주교를 포함한 콥틱지도자들을 구속했다.

사다트는 이스라엘로부터 시나이 반도를 반환받는것에 자기의 정치적 사활이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있었다. 만약 그가 이것을 달성못하는한 그의모든 과거정책들과 회생이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이집트군 참모총장으로서 제복을 입은 사다트 대통령 피살에 앞서 호스니·무바락부통령과 국방상 무하마드·압델·할림 장군과 같이 사열대 앞에 서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都市의 王子

새 映画

상영시간 2시간47분에 출연진 1백26명이 각자 개성을 지니고 수없이 움직이고 대화를 나누는 데도 지리하지 않은「PRINCE CF THE CITY(도시의 왕자)」. 미국영화로서는 오랫만에 실생활상을 다루면서 윤리문제를 재판하타고 내놓아 곤혹감마저 느끼도록 심각한 영화다.

대니·치엘로(트릿·윌렴스)는 뉴욕경찰의 SIU멤버(특수대). SIU는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며 마약범죄를 다루는 정예부대로 파트너간의 의리를 목숨처럼 중히 여긴다.

그들은 제보자겸 범법자와 곤적거리는 정을 나누고 정보의 댓가로 마약을 제공하는가 하면 압수한 돈을 착복하는등 과연 뱃지만 없으면 누가 법집행자이고 범법자인가를 구분하기 힘들정도. 어느날 대니는 경찰의 부정을 조사하는 검찰특조위로 부터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파트너의 비밀만은 제보할 수 없다는 조건하에 대니는 밀고자가 되는데.

심각하나 지리하지않은 2時間半

내적 긴장감을 팽팽히 불어넣는 이영화는 대니가 밀고자가 되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너무 허술한점이 옥에 티지만 자책과 의리와 밀고 그리고 위증과 배신이 소용돌이치며 과연 법이란 모든 것을 정당화 시킬수 있느냐는 난감한 질문을 제시한다.

존존한 한 경찰관이 정의구현이라는 구실아래 자행되는 법의 일방적 진리 앞에서 심신이 피폐해가는 과정을 트릿·윌렴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열연한다.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진실과 허위와의 경계는 누가 그어놓은 것이며 조직앞에서 한 개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하는 문제를 새삼 절감한다.

「홍보는 순정」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둔다. 시드니·루멧감독으로 음악도 훌륭한 초중량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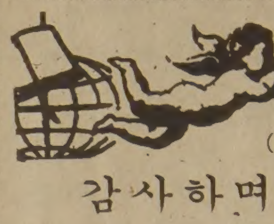
오라이언사제작. 와너브라더스배급. 등급R.

▲법집행자와 밀고자 사이에서 방황하는 트릿·윌렴스.

PLO 아라파트議長 12일부터 日공식방문

〈동경-UPI〉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는 오는 12일 부터 4일간으로 예정한 일본공식방문일정을 3일로 단축했다고 일본-아랍친선협회가 발표했다.

아라파트는 중공, 북한, 베트남을 거쳐 일본을 방문한다.



기쁜 소리 444-4011

(감사절에)

감사하며 살자

안 상 엽

감사할 조건이있을때 감사한다는 것은 인간의 성정이며, 또한 매우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감사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는사람이 적지않게 많을것을 본다. 또 실상 감사를 말로는 하면서도 감사의 표현을 전혀 구체화 시키지 않는 사람도 종종본다.

"감사한다"는것은 은혜를 깨닫는데서 시작된다. 성서에서는 하나님께 향기의 제물로 바치는 과부의 동전을 고귀한 것으로 칭찬한 예수의 말씀이 있다.(눅21·1) 그것은 돈의 단위로 볼 때 가장 적은 것이었다. 그러나 부자가 가진 많은것중의 한 부분보다는 자기에게있는것 전부라는 진정한 정성이 담겨있다는 점에 정리가진 있다.

즉 감사의 동기가 풍부하고, 부요한 수량으로 계산된 신문지상의 발표나 길모퉁이에서 뿌리는 자세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자에 대한영광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특정인물이나 단체의 자기자랑이나 자찬일 것이다.

이런 진리는 성서중에서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란 자기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축복의 근원이나, 이웃을 이용하지 않했다는 인식이요 증거가 되는것이며, 결국"주심"을 아름답고 감사하게 받았다는 뜻이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나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감사한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선한 인격과 신앙으로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이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중에는"감사"라는 말이 개별적으로 있지않고, 언제나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과 사람들의 축제와 제사(예배)와 관련되고 있다.

내것은 어떤 조건때문에 떼내고, 또한 인심을 쓴다는 식의 행위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전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때문에"처음열매, 알곡, 온전한 제물, 깨끗한것, 정성, 받으실만한 향기, 십의 하나"등등의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감사"는 어떤 개념이나 교리적인 술어가아니라, 땀의 가치요, 수고의 열매요, 믿음의 선물을 받아 기뻐하는 노래요, 기도요, 제물이요, 예배전체인것이다.

즉 사람이 선하게 다스리는 수고없이 얻은 불의한재물이나, 욕심을 채우려는 불만 속에는 감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불신자)에게는 감사하는 생활이 없다고 한 것이다(롯1 : 20~21)왜냐하면 욕심에 욕심만을 더해가기 때문에 죽을때까지 불만은 있을지언정 감사할 기회는 없는 것이다.

"감사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질서를 만드는 최고의 도덕률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자라면 감사하는사람이 되어야한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사회에도 서로 주고받은 작고 큰 은혜에대한 감사가 없을때 따뜻한 교제나, 아름다운 사랑이나, 선한 행복이 없고, 물거품같은 껍질만 뜨게 된다.

입은 은혜를 헌신짝처럼 잊어 버릴때 약육강식과 생존경쟁의 동물성 속에서 이웃은 하나의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자기만족 추구를 위해 비판하고, 나아가 신을저주하기까지 이르러 아름다운 관계와 질서를 깨뜨리는 결과까지 얻은 것이다.

"은혜"와"축복"의 추구를 위해 이리저리 뛰는 발걸음을 올바른 지성과 양심과 신앙으로 억제하면서, 오히려 진정한 감사가 담긴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겠다.

(선교교회 담임목사)

대한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제4회 캐네디안 태권도 챔피온쉽

Demonstration by Masters !

SATURDAY, OCT. 10th. 1981

Elimination's 10 : 00AM
Final 7 : 00PM

YORK UNIVERSITY GYMNASIUM

4700 Keele St. Toronto, Ont.
Tait McKenzie Bldg.

ADMISSION FEES

Adults $5.00
Children $3.00

Tickets available at
Main Reception Counter
in York University Gymnasium

INFORMATION CALL :
(416) 922-5117

* 티켙을 구입하시려는 분은 각한인 태권도 도장에게 문의바람

카나다 한인태권도 협회
회장 정 기 태

후 원 : 한 국 대 사 관
대한체육회 카나다지부
카나다 W.T.F. 태권도협회

◁생기있는 이민현장 탐방▷

꿈을 키우는 사람들

—낙농장 경영꿈 이룬 박태순씨

◇트럭터로 건초운반중 꼬마손님들을 맞은 박씨와 가족들—뒷자리에 앉은 이가 부인 조여사

높은 이자율과 상승하는 인프레이션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농가의 수가 날로 격증하는 캐나다의 현실에 비추어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하고 꺼려하는이 목장경영의 꿈을 이룬 교포가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76년 토론토에 이민온후 지난 5 년동안 밀크·스토어를 경영해 오면서 잠시도 그꿈을 버리지않고 키워온 박태순씨가 그 장본인이다.

토론토에서 동북방으로 약 80여km떨어진 그린·뱅크(Green Bank) 지역에자리한 박씨의 목장은 약134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대지다. 목장이 끝에서 저끝까지 안보이며 둘레도근 십리에 달해 차로도 한참 달려야 한다.

높은 사료공급 타워가거대한 건초장옆에 위엄있게 서있고, 그 아래로 60여마리의 살찐 젖소들이 건초를 먹는것을 박씨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녹색작업복 차림의 원칠한 키에 검게탄 박씨의 모습은 자신이 농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엿볼수있게 해준다.

실제로 박태순씨가 캐나다땅을 밟은지는 이민오기 훨씬전인 67년도 골롬보계획에 의해서였다.

64년 충북 농과대학 축산과를 졸업한 박씨는 청주 농촌진흥원에 근무하던 당시 낙농관계 현장실습차 온타리오 런던지역에 위치한 한 목장으로 오게됐다. 그곳에서 6개월간 현장실습을 마친 박씨는 다시1년간 구엘프농과대학에 수학한바 있다.

현재 목장경영의 오른팔격인 부인 조수자여사를만난것도 조여사가 런던에있는 병원에서간호원으로 근무하던 당시였다. 69년 부인과함께 귀국한 박씨는 충북도청 축산과에근무하면서도 평소의 소망이던 낙농장 경영의 꿈을 버릴수 없었고, 늘 캐나다의 광활한 벌판이 마음에 연상되어 왔다. 이 부푼꿈을 이루기위해 이곳으로이민길을 택하였던 것이다.

현재 온타리오 지역에도 몇몇 교포들에의한 채소농장은 여럿 있지만 이와같은 대규모 농장에 손을 댄 사람은 박씨가 처음인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이 낙농장을인수한 박씨는 운영상의 문제에있어 기계화된 각종기구 확보가 가장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현재 박씨 목장이 소유하고있는 장비로는 트랙터 3대, 왜곤 2대, 농장용 트럭1대등인데, 더 고도화된 장비가 요구된다.

목장운영을 위한 특별한 정부혜택은 없으며 목장운영에서 얻어지는 소득은우유판매로 얻어지는 연간약 8만여달러가 주수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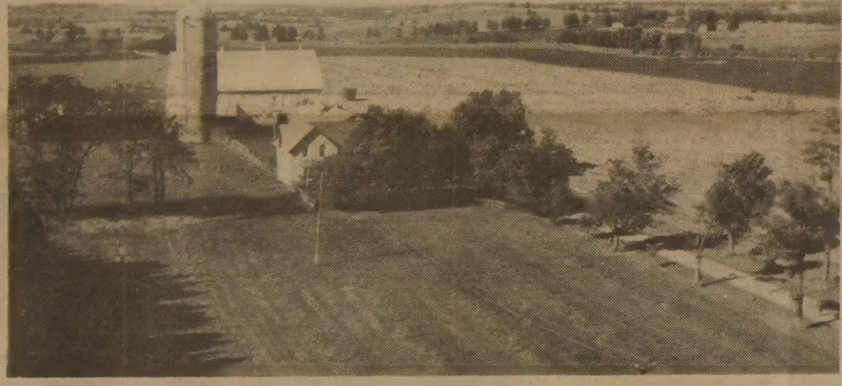
젖소를 위한 사료는 거의 100% 자체생산이 가능하므로 여름한철 부지런히건초생산에 주력하면 된다

농장의 일부에서 옥수수를 생산, 젖소사료로 쓰여지고 있다. 박씨의 목장은 지면이 고르고 경사도가낮아 100% 경작할수있는 호조건하에 있어 앞으로 다목적 농장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다.

독실한 카톨릭신자로 부인 조수자 여사와의 사이에 1남1 녀를둔 다복한가정을 이룬 박태순씨는 앞으로 낙농관계에 뜻이있는 교포들을,위하여 상담에응할뜻을 표하고 있으며, 목장경영이란 자금문제에 앞서 어느정도의 경험과 지식, 더욱 중요한것은 불굴의 투지력이라고 강조한다.

풀이 듬성이난 목장을가로지른 길위로 건초다발이 집채처럼 실린 왜곤을 박씨가 트랙터로 끌어오고, 멀리 농장 등성이 너머에선 건초다발을 묶는 부인 조수자 여사가 운전하는트랙터 소리가 이 조용한 농장에 앙상불되어 퍼져 나간다.

꿈을 키우고 가꿀줄아는 사람들, 이들 부부야말로 그 표본이 아닌가 싶다.



◇대자연을 숨쉬며 생동하는 박태순씨의 낙농장 전경—등대처럼 우뚝솟은 사료공급타워가 사령탑인양 보인다.

上衣부터 한가지씩 벗는 美女立看板

佛 누드광고 論爭

여체의 신비를 보여주는 누드광고 캠페인이 최근 프랑스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파리의 여성해방 운동단체들은 이 여체누드광고가 남성과 여성의 품위를 다같이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리유재판소는 여체누드사진을 보여주는 입광고판을 완전히 가려버리도록 명령했다.

광고업계 자율기관인 광고업협회도 반기를 들고 나서, 「여체와 관계없는 것을 선전하는데 여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 누드광고 소동은 지난 7월31일 파리시내의 5백여입광고판과 전국 주요도시의 수백개 광고판에 비키니차림의 아가씨사진이 일제히 선보이면서 시작되었다.

이 광고에는 비키니차림의 미녀가 미소를 머금은 채 육체미를 과시하면서 「오는 9월2일에는 웃도리를 모두 벗겠다」고 쓰여있다.

광고에는 아무런 상품도 언급되거나 그려져 있지않았다.

정확히 이틀뒤에 전국의 똑같은 광고판에 같은 미녀의 젖가슴을 드러낸 토플리스차림의 포스터가 나붙었고 「오는 9월4일에는 아랫도리를 벗겠다」고 쓰여 있었다.

두번째 누드광고가 거리에 나붙자 신문·TV·라디오들이 이를 대서특필했으며

女性단체서 맹렬히 反對
"男性위신도 실추" 廣告社선 "약속지켰다"
法廷에飛火, 가리라 判決

여성해방운동(MLF)은 여성착취 행위라면서 법정투쟁을 다짐했고 정부의 여성성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약속된 9월4일 전국의 광고판에는 뒤돌아서서 히프짝만을 드러낸 같은미녀의 누드사진이 나붙고「아브니르, 약속을지키는입광고판회사」라고 쓰여있었다.

누드는 프랑스의TV나 광고에서 흔히 볼수있는것이나 이것이 입광고판에 등장했고 또광고회사가 약속을 지켰다는데 시정의 화제가 되고 신문지면을 크게 장식했다.

그러나 벨기에 접경도시 리유에서는 여권단체들이 법에 호소하고 나와 법원은 광고회사측에 벌거벗은 히프를 가리도록 판시했다.

이 이색 누드광고 캠페인을 벌였던 CLM=BBDO광고회사의 필립·미셀사장은 그러나 『입광고업계에서 고객들은 그들의 광고판이 약속한 날짜에 나붙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있어 그들에게 우리가 약속을지키는 회사임을 보여주기위해 이같은 운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미셀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입광고판이 대중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 광고 수단임을 보여주려 했다면서 누드사진시비가 있지만 모델이 선정적자태를 보인일이없고 그같은 모습은 어느 프랑스 해안지대에 가도 볼수있다고 말했다.

높이3·6미터 너비2·7미터의 광고판에 누드모델로 나온 여성은 미리안이라는 예명으로 통하는 직업모델인데 이 광고로 전국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르·마뎀지와의 인터뷰에서 자기의 나신이 외설적이거나 천박한 포즈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갑자기 명사가 되었기때문에 단골카페를 가거나 거리를 산책할때 유명세라는걸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⑫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이제 하우미은 실로 두마리의 싸우는 오소리 모양을 만든다. 모든 사람들이 뜨게질을 멈추고, 두마리가 싸우는것을 바라보면 오텍은 목소리를 두가지로 내서 그 싸움이 더욱 생생하게 보이도록 효과를 돋운다. 드디어 실의 고리는풀어지고, 그중 한마리가 없어지자, 싸움에이긴 오소리도 곧 풀어지고 없어진다.

오텍은 잠자는 다람쥐의 이야기에 관계되는 특별한 모양으로 실을떠서 계속한다. 늙은 칼라까지도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으로 쿠마닉·앙쿠니(큰 호수)의모양을 억지로 만들어 보인다.

뜨게질은 계속되고, 사람들은 새로운 모양이 나타날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잘못될때는 웃음바다가 된다.

주위에서 지켜보고있던 세마리의 강아지들이 갑자기 변성이 되지않은 목소리로 짖어대며 헤콰우가 오는것을 알린다. 하우미은 국을 데우려고 불을 다시 본다. 헤콰우가 바로 옆에 살고있어도 손님이기 때문에 곧 대접을 해야 되기때문이다.

저녁때에는 으레 사람들이 마실을 오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은 자주 한 곳에 모이며, 그럴때는 늙은 헤콰우가 까만 눈동자를말똥말똥 뜨고 잠자코 있는 어린 환자에게 병이 낫아지도록 빌때도 있고, 또는 옛이야기로 이내 이어지기도 한다.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것은 키비옥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정처없이 헤매다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슴의 신인 툭투리악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처없이 헤맨다. 키비옥은 내가 한번도 본일은 없지만 여기서 서쪽에 위치한 어떤큰 호숫가에 살았단다. 키비옥이 아직 젊었을때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사향소를 잡으러 나간사이 북서쪽에서 내려온 반인반수인 에자카가 동네로 들어와 그의부모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고아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키비옥은 카약을 타고 호수의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가는 동안 두개의 큰 산이 양옆으로 보이는 곳까지 왔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이것은 산이아니고, 한마리의 거대한 곰이벌린 입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곰의입은 쉴사이 없이 벌렸다 오무렸다 하는데 큰 이빨이 마주치는 소리가 마치 카일라신이노하는 천둥소리처럼 요란했다. 다시 벌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카약을몰고 입속으로 들어갔다. 곰의 큰 입이 곧 닫혀지고, 카약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키비옥은 용하게 위험을 면했다.

이제 비키옥은 남쪽에있는 새로운 땅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 모녀가 살고 있는 텐트를 발견했다.

딸의이름은 올라릭 이라고 했다. 키비옥은 딸과함께 잤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되어 한동안 잘 살았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가점점 질투를 느끼고, 키비옥이 자기남편이 되었더라면 하고 바랐다. 그녀는 키비옥이 사냥을 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딸의머리에 장식을 달아주겠다고 꾀어서딸의 머리에있는 나무로만든 장식품인 투글리를 고쳐주는척 하더니 딸의 긴 머리로 목을감아 졸라죽였다.

(계속)

종 교 서 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 정 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 병 한	주일오전 7 : 30 영어설교 오후 1 : 00 오후 2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 사 철	오후예배 1 : 00 성경공부 2 : 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 근 환	주일오후 1 : 30	3819 Bloor St.W.	741－5411
순복음교회	이 필 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회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 순 관	대 예 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 : 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 주 성	주일새벽6 : 30 주일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 희 선	주일 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881
런던한인교회	신 용 규	주일대예배11 : 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저녁예배7 : 3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준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 세 주	주일오후 1 : 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 : 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 상 봉	수요저녁 7 : 00 주 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 경 진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 승 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시30분 중고등 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 상 호	주일오후 2 : 00 토요오전 7 : 00	105 Wilson Ave.	482－4577 633－8132
서머나감리교회	김 옥 희 전 도 사	주일오후 2 : 00 수요예배 7 : 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8860
선교교회	안 상 엽	주일 낮1 00 저녁 7 : 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대한수도원	조 권 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평신도복음선교회	선 교 회	예 배 주일오후 2 : 00	2501 Warden Ave.	298 9031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 화 삼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30 4 : 0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 이 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 태 진	주일오후 2 : 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 재 광	주일오후 1 : 30 금요저녁10 : 30 수요서녁 7 : 30	126 O'conner Dr. at Pape·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 세 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 창 환	수요저녁 7 : 30 일요오후 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 용 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 용 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 형 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 관 일	주일오후 1 : 00 금요오후 8 : 00 성경공부 2 : 2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 종 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 신 용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 경 남	주일오후 2 : 00 금요집회 밤8시 주일오후 4 : 30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 인 환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 상 대	주일오후 1 : 00 (영 어 예 배) 주일오후 2 : 00 (대 예 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 재 신	주일오전11 : 00 낮12 : 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 희 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1183 Davenport Rd.	535－8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 낙 중	성경공부 2 : 30 주일학교 3 : 00 예 배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 752－7771
회 장 : 이 형 인
부회장 : 엄 철 원
〃 : 김 명 정
이사장 : 김 태 진
부이사장 : 전 윤 식

현상문예작품 1등에 「골핑위도우」

지난 9월18일자로 마감한 문예작품으로 심사에 넘겨진 10명의 12편 작품중 우수작 없이 입선작 1등에 원옥재씨의 수기「골핑 위도우」라는 유모러스한 제목의 작품이 뽑혔다.

협회가 최초로 시도한 이번 공모는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기대했으나 우편파업으로 인한 마감연기등여러 곡절을 겪는 바람에 우수작을 내지 못했으나 응모해준 분들의 작품을 통하여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더 공감하게 되었다는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작품을 최종적으로 심사해 주신 문인협회 고문 이석현 선생과 조정대 이사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시상식은 10월15일 목요일 하오5시에 협회에서 거행할 것이라하며, 입상자들에게는 개별통지될 것이라 한다.

우수작 없는 입상자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예작품 입상작

입선1등 : 수기 「골핑위도우」 원옥재.
입선2등 : 수기 「이민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마한 나」 김영희
입선3등 : 수기 「자화상」 신승숙
가작 : (시) 「시 절」 이혜숙
가작 : (시) 「어느 이민자의 노래」 이명숙

입상 작품들은 실협뉴스란을 통하여 연재 발표 될 것이며, 소정의 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 한다.

실협 제1회 문예작품 공모

심 사 평

(문인협회 고문) 이 석 현

이번 실협의 현상문예에 응모된 작품, 즉 심사에 넘겨진 작품이 10명의 12편－장르별로 나누면 수상 5편, 수기 2편, 시가 5편이다.

응모자 10명중 여성이 대다수임은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정서에 메마른 탓인지? 현실생활이 그만큼 각박해서 마음의 여유를 못 가진 탓인지 모르겠다.

매양 그러하듯이 현상응모작품은 주최측의 성격과 모집취지를 먼저 파악하고 글을 엮어서 보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심사도 그런 관점에서 실시했음을 밝혀둔다.

실협의 작품모집은 문인협회의 "신춘문예" 등과는 달리, 문사(文士) 양성이나 문학가 선발이 목적이 아님은 자명(自明)하다.

실협이 모집주체 (主体)라면 우선 이민현지의 비지니스 생활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겪고 느껴지는 애환과 저항의식과 애로, 고충, 희망등 체험과 꿈(이상)을 소재로 삼아야 하며, 그러면서 퇴폐적이거나 비관적이 아닌, 의욕적이고 도전적이며(현실의 난관에 대한…) 건설적 측면에서 글을 엮어 나가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응모작품중 어떤 것은 모집취지와는 거리가 먼 동떨어진 것. 신세타령이나 넋두리로 그친 것, 읽어서 슬퍼지지도 않는 어색한 애상적(哀傷的) 과거 회상이나 향수편을 보내왔다.

작품별로 단평을 하자면 수상「소용돌이 속의 달팽이」는 테마가 희박하고, 논지(論旨)가 뚜렷하지 않은게 단점이나 문장력은 세련되어 있다.

시「길고 긴 세월」과「참사랑을 약속해요」는 시상이 약하고, 서술이 미숙하며, 시로서 구투(묵은 수법)이다.

수기「그 아무도 없는들가운데서…」는 너무 평면적 기록이며, 표현력 부족이 지적되겠다.

시「여심」은 테마가 약하고, 이미지도 또렷치 못한 것이 흠이며, 수상「일요일에 문을 닫으며」는 일요일 가게문 닫는 일의 설명에 그쳐 절실감 없고, 평범한 줄거리이다.

수상「나의 덧버선」은 상이 약하고, 이야기가 야무지지 못하며, 마무리 없이 나가다가 중단하고 만 느낌을 준다.

입상작중에 시가 2편 끼었는데, 시작(詩作)에 경험이 많은, 군더더기가 적고 매끄러운 시형태는 갖추었으나 이번의 모집취지에서 동떨어진 테마며 내용이었으므로 아깝게도〈가작〉에 머무르고 말았다.

시〈가작〉「어느 이민자의 노래」는 제목 자체가 시적이 못된다. 너무 평범하다는 뜻이다. 특히 시에 있어서는 제목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어선택과 그 배치에 비상한 신경을 써야 한다.

엮은 솜씨는 인정되나 향수에 젖은 넋두리에 그치고 말아, 모집의도에서 거리가 먼 소품이다.

시〈가작〉「시절」은 시어구사며 구성에 재치를 보여준다. "세월처럼 낡은 도시"니 "피에로의 엉거주춤한 표정," "세월이 달리던 언덕길," "시를 쓰는 여자처럼 보드랍던 내 순수", 등은 익숙한 솜씨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런데, 실수는 여섯쨋련에 앉힌 "통금"이란 말이 이 시를 이민현장 아닌 한국으로 옮겨다 놓는 인상을 주는 점이다.

대체로 어색함 없이 능란하게 엮었으나 이민생활을 질량감 있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아쉽다.

입선 〈3등〉의 수상「자화상」은 이민생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반성, 그리고 앞날의 삶에 대한 설계, 2세에의 배려및 염원을 마치 자화상을 들여다보듯이 진지하게 차분하게 엮었다.

테마도 좋고, 서술도 자연스러워 무난하다.

결점으로 가끔 초점이 흐리게 흐트러지는 점을 지적하겠다.

입선 〈2등〉의 수기「이민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만 나」는 무척 공들여 엮은 이민체험기이다.

너무 사실나열에 그친것 같은 평면적 서술이라, 야무지게 꽉 짜여지지 못한 것이 흠이고, 군더더기도 많으나,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실감나게 독자에게 육박하여 공감을 불러 일으켜 줌은 그만큼 이 글이 박진력을 가진 체험기이기 때문이다.

강도수난 연발은 고의적 허구성이 엿보이나 그러면서도 현실도전과 강한 생활개척 의욕이 담긴 것이 이 글의 강점이다.

표현력과 문장구성에 세련되었더라면 보다 우수한 글이 나왔을 것이다.

입선 〈1등〉의 수기「골핑위도우」는 문장력이 매끈하고, 이야기 전개가 능숙하다.

서두부터 단편소설을 읽는 듯이 극적 시츄에이션을 보여준다.

남과 여의 취미성향이며, 내외의 내적갈등등을 실감나게 엮으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한 마디로 작품으로서의 구색을 갖춘 글이다.

어색한 점은 마지막 씬의 여주인공 "현아"마음이 돌연변이(突然變異) 하는 그 당위성(當爲性)이 약한게 옥에 티로 되어있다.

끝으로 모든 응모자에게 한번 더 당부한다.

현상응모에는 모집주체의 성격과 모집취지에 우선 맞는 글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한국일보
533-2361

얘기의 샘

야밤중의 呼出

택시는 손님하나를 태운채로 밤안개를 헤치며 쾌속으로 달리고 있었다。새벽2시。차속의 손님 젊은 사내의 귀에는 차창으로부터 갓난애 울음소리가 어렵풋이 들려왔다。 환청(幻聽)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10분전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원의 전화가 있지 않았던가。

『원장선생님이 곧병원으로 오시랍니다。』

간호원은 제할말만하고는 전화를 끊었다。심야에 병원에서 나를부른 이유는 뭔가。이제야 그이유를 분명히 알것 같았다。

그일밖에는 생각해낼수가없었다。병원에 내아내가 입원해있다。아내가 방금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킨것이다。그런데…。

혹시 그아이에게 무슨 불행한 사고가 난것은 아닐까…。

『기사양반! 좀더 빨리 달릴수는 없소?』

여성 취미지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

협회 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 &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각종 썬 그라스

7년간 봉사해온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인실업인협회

정부회장 입후보등록공고

회칙 제6장 2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선 거 일 : 1981년11월27일(금요일) 오후4시
선거장소 : Holiday Inn Don Vally
1250 Eglinton Ave. East(Wynford Dr에 입구있음)
등록마감 : 1981년11월11일(수요일) 오전12시
등 록 금 : 각 입후보당 $1,000(은행보증수표, 일체반환없음)
후보자격 : 회칙 제2장 4조1항에 의한 정회원
등록구비서류 :
가. 이력서2부(명함판 사진1매씩)
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1부
다. 추천서 1부(선거관리위원회 서식에 의한 정회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추천서)

1981년 10월 9일

한인실업인협회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이 국 영

한인실업인협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본회 회칙 제3장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981년도 정기총회를 소집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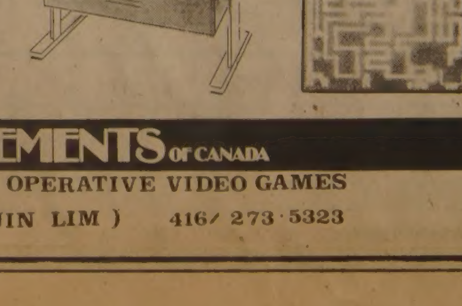
— 아 래 —

시 일 : 1981년11월27일(금요일) 하오4시
장 소 : Don Vall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
(Wynford Dr. 에 입구있음)
안 건 : 1. 과년도 사업보고및 결산승인
2.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3. 이사회 보고
4. 감사보고
5. 정 부회장및 이사선출
6. 회칙개정
7. 기타안건

1981년10월9일

한인실업인협회장
이 형 인

전자 오락 기계 (게임 머신)
판매 및 렌트

ㅇ투자없이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
ㅇ여러종류의 머신을 주기적으로 교환
ㅇ신속한 에프터써비스(고장·수리)
※이익금으로 스토아 렌트 해결보장

VIDEO AMUSEMENTS OF CANADA
MANUFACTURER'S OF COIN OPERATIVE VIDEO GAMES
임경진 (JIN LIM) 416/ 273·5323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 · 2361

企業 金融費用 73% 늘어

작년 財務構造악화… 79年比

평균16億원…負債率 5백%

經常利益 1社 5億赤字꼴

産銀조사

換率 대폭引上·제2의 石油波動여파

金利의탄력運用·税制개편등對策시급

우리나라 주요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지난80년중 급격히 악화, 10년래 최악의상태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經常이익률과 총자본이익률등 기업의收益性을 나타내는지표, 매출액증가율과 총자본증가율등 기업의 成長性을 나타내는 지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등 기업의 健全性을 나타내는 지표등 각종기업경영지표가 일제히 악화돼 지난70년이후 가장나쁜상태를나타내고 있는것으로밝혀졌다.

3일 산업은행이 전국1천4백76개 주요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財務分析』(자)결과에의하면 80년중 주요기업들이 부담한 금융비용(이자)총액은 2조3천9백19억8천1백만원으로 79년의 1조3천8백38억5천8백만원에 비해 무려72.8%나늘어났으며 이같이 과중한 자부담때문에 경영수지가 크게 나빠져 기업경상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등 수익성지표가 모두 70년이후 최하수준을 기록했다.

기업경상이익률은 80년중 7.49%로 71~80년 10년동안 최저7.9% 최고11.14% 평균9.13%수준을 크게 하회했으며 매출액경상이익률은 0.01%에 불과 이 역시 71~80년 10년동안의최저0.61% 최고7.06% 평균3.36%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반해 주요기업들의 차입금 평균이자율은 15.68%로 70년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면서 71~80년 10년동안의 최고14.16% 최저9.32% 평균11.60%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기업들의 이자부담액이 과중해진것은 이처럼 평균이자율이 급격히높아진데 주된원인이있지만 기업들의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데도 중요한 원인이있는것으로 분석되고있는데 80년중 주요기업들의 부채비율은 5백7%에달해 70년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으며 71~80년 10년동안의 평균3백55%, 최고4백19%, 최저 2백62%를 훨씬 상회한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과 평균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조사대상기업들은 80년중 1개社當 평균16억3천만원의 과중한 이자부담을 했으며 이에 반해 경상이익은 평균 5억2천8백만원씩 적자를 냈다.

80년중의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는 ①1·12조치에의한금리및환율의 동시대폭인상 ②79~80년중의 장기불황 ③제2차 석유파동등에 기인한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개선및 기업체질강화를 위해서는 ▲금리정책의 탄력적운용 ▲시설대여등 금융제도의 확충 ▲기업내부축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등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할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주요경영지표추이

(단위=%)

주요지표 / 연도	부채비율	자기자본구성률	총자본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기업경상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차입금평균이자율	총비용대비금융비용율	배당률
1970	345·41	22·45	1·68	7·47	8·96	2·19	13·87	9·37	4·66
1971	419·60	19·25	0·48	2·48	7·90	0·61	14·16	9·20	4·11
1972	279·94	26·32	3·45	13·10	8·77	3·92	11·78	6·08	5·07
1973	262·00	27·62	6·94	25·12	11·14	7·06	9·32	4·43	10·45
1974	300·94	24·98	4·41	17·66	8·90	4·19	9·62	4·30	11·09
1975	317·87	23·93	4·31	18·00	9·23	3·74	11·47	4·32	11·01
1976	332·00	23·15	4·80	20·72	9·54	4·01	10·07	4·04	11·09
1977	347·27	22·36	4·29	19·18	9·21	3·56	10·41	4·14	9·89
1978	370·48	21·25	4·64	21·84	9·72	3·79	10·58	4·22	9·00
1979	419·86	19·24	3·39	17·62	9·42	2·80	12·99	5·02	8·66
1980	507·42	16·46	0·01	0·06	7·49	0·01	15·68	6·06	5·05

美、MX미사일 百基生産배치

레이건 B1機도生産 86年 實戰배치

스텔드爆擊機는 90年까지

【워싱턴2日=合同特約】 레이건 美대통령은 2일 소련의 무절제한 무력증강에 대처키위해 최소한 1백基의 MX이동식 미사일을 생산배치하고 77년 카터 대통령에의해 생산이 중단됐던 신형B1전략폭격기도 최소한 1백대 이상 생산할것이라고 선언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하오(한국시간 3일새벽3시)기자회견을 통해 약1천8백3억달러가 소요될 이같은「레이건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되고있는 MX미사일의 배치방법과 장소에관한 결정은 3년간 보류한다고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신형B1폭격기는 노후한 B52폭격기를 대체하여 실전에 배치될것이며 1990년대에는 소련의 레이다망을 피해 영공을 침투할수 있는 보이지 않는 폭격기(스텔드機)를 실전배치토록 개발에 박차를가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형B52폭격기는 크루즈미사일 적재용으로 개조되며 구형B52폭격기는 82년과 83년 모두 퇴역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어 B1폭격기의 첫 비행중대가 86년부터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트라이던트Ⅱ장거리 수중발사 미사일은 89년부터 잠수함에 적재될계획이라고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MX미사일의 최종배치방법은 오는84년까지 확정될것이나 첫배치분 36기는 애리조나, 아칸소및 캔자스등지에 기존하는 강화된 타이탄Ⅱ지하 格納庫에 배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蘇, MX生産비난

【모스크바2日UPI=聯合】 소련은 2일 레이건 美행정부가 MX이동식미사일 1백基를 배치하고 B1폭격기생산을 시작키로 결정한데 대해 이는 美·蘇양국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계기가 될것이라고 비난했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이날 레이건 대통령의 MX미사일 배치및 B1폭격기 생산결정 발표에 대한 첫 논평기사에서『미국은 결정적인 핵무기경쟁확산을 시작했다』면서 그와같이 비난했다.

全대통령、3軍士체육대회 관람

全斗煥 대통령은 3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제28회 3軍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약1시간40분간 참관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 周永福국방장관의 안내를 받으며 서울운동장에 도착, 空士와 陸士의 럭비 후반전경기와 5천m단축마라톤, 海士―空士의 축구경기전반전을 차례로 관전하고 선수들과 3軍사관학교응원단을 박수로 격려했다.

〃生存위한 主體性을

民族의安全 스스로의 力量에달려〃

全대통령、開天節 慶祝辭

全斗煥 대통령은 3일『오늘의 이 시점에선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스스로의 민족적 自覺과 단결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우리는 오늘의 각박한 국제환경속에서 민족의 존립과 번영을 확실히 하려면 단순한 論理의 전개나 구호이전에 우선 우리자신의 생존을위한 최우선조건인 主體性의 확립이 더없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천3백13주년 開天節 기념식에서 南悳祐국무총리가 대신읽은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국가와 민족의 主體性이 확립되어있는 線上에서 開放體制가 추구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떳떳하게 발돋움할 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어려운 內外현실을 극복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는 올바른 역사의식과 투철한 민족정신을 확립해 전국민이 힘을 모아대처해나가지 않으면 안된것』이라고 강조하고『단순한 논리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역사와 현실에 대한洞察에서 우러나오는 愛國愛族의 정신과 그 실천이 그어느때보다도 요망되는때』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한민족의 안전과 權益을 보장하는것은 그민족 스스로의 의지와 역량뿐』이라고 말하고『근래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속에 국가민족의 운명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利己주의적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은『지금 우리는 우리역사상 일찌기 볼수없었던 민족내부의 反民族的책동과 투쟁하고 있다』고 밝히고『民族史의 正統性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北韓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을 云謂하는것은 기만이며, 새로운 王朝를 세우고자하는 北韓공산집단의 妄動은 역사발전에대한 反動』이라고 경고했다.

스즈끼 5월訪韓

아이찌政務次官

【東京2日=聯合】 스즈끼(鈴木善幸)日本수상은 내년1월쯤으로 예정됐던 당초 일정을 철회, 내년5월께나 韓國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의 아이찌·가즈오(愛知和男)政務차관은 2일 도오쿄(東京)의 한호텔에서 강연하는가운데『내년1월의 스즈끼수상訪韓은 어려운정세』라고 지적,『내년5월초 연휴중이나 정기국회가 끝나는 5월하순에야 訪韓이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日政府 反省論대두

五輪誘致 敗北에

【東京2日=聯合】 일본정부는 88올림픽유치경쟁에서의 나고야패배가 대국주의적 오만에대한 반발때문이라는 반성론이 대두되고있는가운데 서울올림픽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일열린 閣議에서 다나까(田中龍夫)文部相과 오꾸노(奥野誠亮)法相은 나고야(名古屋)의 패배가『대국주의에대한 반발』때문이라고 지적하고『세계각국의 對日감정이 나쁜데대해 반성하지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두장관은 韓日양국관계의 장래를 고려, 서울올림픽이 성공하도록 일본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五輪 성공위해

스즈끼〃最大지원〃

【東京2日時事=聯合】 스즈끼·젠꼬(鈴木善幸)日本수상은 2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올림픽調査團 파견

政府 年內에 東京·몬트리올·아테네등에

정부는 2일「88서울올림픽대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최하기위해 올해안에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준비조사단을 도오쿄 몬트리올 아테네등 역대올림픽개최지에 파견, 다각적인 체육정보를 수집키로 했다.

문교부·대한체육회·서울시·건설부등 관계부처실무자들로 구성될「올림픽조사단」은 아테네(1896년·1회), 도오쿄(64년·18회), 멕시코(68년·19회), 뮌헨(72년·20회), 몬트리올(76년·21회)등 역대올림픽개최지를 돌며 ▲경기장별규모및 각종시설의 특장단점 ▲각경기종목별 데이터수집 ▲경비조달방법 ▲올림픽개최후의 관련시설이용현황 ▲도시구조등을 파악하게된다.

또조사단은 84년에 올림픽이 열리는 로스앤젤레스에도 들러 준비상황등을 파악하고 각종 관련자료를 수집해올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조사단원들이 수집분석한 자료들을 연도별 올림픽추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키로했다.

誘致團 오늘歸京

서울시는 88년도 올림픽의 서울유치에 성공하고 4일하오3시30분 귀국하는 朴英秀서울시장등 유치단을 대대적으로 환영키로했다.

시는 제62회전국체전과 88년 서울올림픽유치를 함께 경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光化門에 대형아치를비롯 육교주요건물등 모두1백20여개소에 플래카드와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기념지하철승차권5백만장, 기념공원입장권1백만장의 제작에 나서는 한편 기념담배와 기념우표를 발행토록 했다.

南北대화 再開협력

盧외무·발트하임

【유엔본부2日=金泰雄특파원】 盧信永외무부장관은 2일하오6시15분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과만나 남북대화재개와 유엔가입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두가지문제의 실현을위해 계속 협조하고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약30분간 계속된 회담엔 尹錫憲유엔대사와 李時榮국제기구국장이 배석했다.

회담이 끝난후 盧장관은 한국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트하임사무총장은 한반도에있어 긴장완화와 남북대화재개를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산과 계곡에 단풍連休人波

◇황금의연휴 주말을 맞은 3일 전국 곳곳에서는 많은인파가 산과 계곡을찾아 가을단풍을 즐겼다. 젊은이들은 전날인 2일하오 雪嶽山등을 찾아 장거리 여행을떠났고 가족단위의 시민들은 교외로몰려 한때나마 도시의 찌든 생활을 잊었다.
【서울道峰山에서】

社会漫評

〃會員은 3千8百萬명 으로하고…〃

地平線

세상을 제압한다던가、그런이름의 회사를 차렸던「무서운아이」가 근래 책을 펴냈다. 「옛날…」어쩌고의달 차근한 제목인데 실속은 큰돈을 잡다만·넉살좋은 넋두리다. 그 책 첫머리께에 이런 말이 나온다『독자 제위께서도… 부동산이 있으면, 한번 등기 열람도 해 보시오』▼외환관리법등위반혐의로 구속된 이 젊은이는 교도소감방에서「접시꾼」이라 불리는 부동산사기꾼 5인조를 만나머리를 조아린다.『실은 나도 본업이 사기였소. 능력이 부족하여 오늘날 요모양 요꼴이 됐으나…』그리고, 사기솟법을 전수받고는 이렇게 한탄한다.『아이고 형님들 왜이제야 내앞에 나타나셨소? 내가 그놈의 담보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다고』▼「무서운 아이」를 감탄케 한 秘法은 지극히 간단하다.『아직도 서울주변에는 임자없는 땅들이 많아요…(하지만) 등기상 지주가 있을거아니겠소? 그럼 그 지주하고 이름이 똑같은 놈을 찾아요. 지게꾼이나 막 노동꾼말이요. 그래서 이 놈을 일당만원정도 줍니다. 이놈 주민등록을 그 땅 지주 주소지로하루만 옮겨요. 그 때구주소에서 인감증명을 뗍니다』▼「접시꾼」들은 그 지게꾼 이름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만든다.『제기동이(美濃池)사다가 大正이나 昭和시대계약서를 만들어, 누런 호박하고 같이찌면 종이가 누리끼리 해져서 영락없이 50년전 계약서가 돼요』이것을 근저로 시세의 30%값으로 무역회사에 땅을판다. 무역회사는 이땅을잡히고 수출금융을 받는다.▼「접시꾼」은 그에게 말한다.『어디 나가면 손잡고 한번 일해보시겠소?』 싯가 2백억원 넘는「물건」이 있으니, 함께 해치우자는 제의다. 이말을듣고 감탄하는것을보면 무서운 그젊은이도 이런데까지는 착안을 못했던모양이다. 그러나 이 솟법은 하나의 현재도 같은 것이다. 어제(3일)아침 한국일보 11면에 크게 난 10억대의 토지사기가 그런 것이다.▼이 사건에서 모두가 전과자인 5인조는 73세의 걸인 이름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있다. 약서의「접시꾼」들이 벌써 출옥했나, 싶을 정도로 솟법이 같은데 문제는 판에 박은듯한 솟법이 그대로 먹는다는데 있다. 住宅事業협회 같은데서는 이런 사기를 막자고 30항목에 이르는 예방책을 홍보하고있다. 그내용은 하나처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사람의 주의사항이다.▼하지만, 사기솟법이 뻔하다면, 그것을막는 제도적·행정적 장치도 가능할줄 안다. 送達등 소송절차、등기부관리와그의 電算化등 따져볼 구석은 하나 둘이아니다.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46
은 : 온스당 US 9.5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 - 9977
534 - 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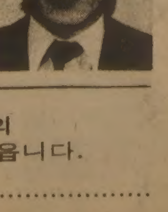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가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 금주의 새 리스팅 〰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짐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 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전략核空軍증강에 力點

「重武裝」으로 드러난 「레이건戰略」

爆擊機 계속開發…對蘇협상이 變數로

解說

【워싱턴3日=曺淳煥특파원】 레이건미 대통령이 2일발표한 美전략 핵군사력강화계획은 전략핵공군의 증강에 초점이 주어진다.

도표까지 합쳐 20페이지로 된 「레이건전략계획」은 「미국지상발사 미사일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할때까지 80년에는 주로 폭격기(그리고 잠수함발사미사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전략의 증강이 이 계획에서 가장 다양하면서 분명하다. 1대 제작에 2억5천만달러가 드는 B1폭격기 1백대를 배치하여 14대로 편성되는 첫 B1비행대대가 86년부터 작전을 하게 된다고 레이건행정부는 발표했다. 그밖의 전략공군강화는 다음과 같다.

▲소련의 레이다망을 피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비행기(고성능기술폭격기)」는 90년대에 배치되며 이 폭격기의 연구, 발전을 강력히 추진한다.

▲B52폭격기를 개조하여 (B52G와 B52H로 명명) 크루즈미사일을 운반하도록 한다. 고성능전자대항 조치장비를 부가하여 소련의 대공방위능력에 저항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구형B52(D)는 82년과 83년에 개혁한다.

▲3천여기의 크루즈미사일이 B52G, B52H, B1폭격기 등에 배치된다. 14대의 첫B52G비행대대는 「82년에 작전할수있게된다」.

「레이건전략계획」은 B1폭격기는 「보이지 않는 폭격기」가 제작되며 배치될 때까지 중간단계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B1폭격기는 87년까지 1백대중 상당수가 제작되며 「보이지 않는 폭격기」가 여러 압력에 의해 제작완성을 서두르지 않도록 하여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이라고 「레이건전략계획」은 설명했다. 한편 잠수함탄도미사일발사 강화계획은 폭격기강화계획에 비하면 훨씬 단조롭다.

▲트라이던트탄도미사일발사 잠수함을 81년부터 87년까지 1년에 1척씩 건조하여 착실히 증강한다.

▲트라이던트Ⅱ또는 D5미사일로 불려지는 더 크고 정밀한 탄도미사일을 98년부터 트라이던트 잠수함에 적재한다.

▲84년부터 수백기의 크루즈미사일을 비핵추진잠수함에 배치를 시작한다.

▲「레이건전략계획」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또 강력한 반대가 일고있는 것이 MX미사일 배치에 관한 결정이다. 「레이건전략계획」은 MX미사일을 최소한 1백기를 배치하며 ①대형 송기(빅·버드)에 배치 ②지상에 배치하여 ABM요격용 미사일로 보호한다 ③요새화 된 발사대에 배치한다는 3가지 방안중에서 하나 또는 그이상을 84년까지 택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84년 최종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제1단계로 36기의 MX미사일을 아리조나, 아칸서스, 캔저스州에 배치되어 있는 52개의 타이탄도미사일발사대를 개조하여 배치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국방성고위관리들은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제1단계로 배치되는 MX미사일이 카터방안과는 달리 고정발사대에 배치되는것이 어떻게해서 소련미사일공격에 노정되는것을 모면할수있는냐는 기자질문에 얼른 대답하지못하고 당황해 있었으며 와인버거장관은…

「레이건전략계획」은 이 『발사대의 요새화』라는 장은 소리로 말한것을 받아쇄화함으로써 MX미사일의 발사가 요새화되면 MX미사일을 파괴하기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더 정밀한 미사일 수가 소련에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레이건전략계획』은 84년까지 소련이 MX사일파괴전략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MX미사일 배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레이건이 1백기의 MX미사일배치를 상당부분 미정으로 두고 다른 전략은 군사력강화를 우선했다는 비난이 의회일각에서 제기되고있다.

또 MX배치를 한꺼번에 결정함으로써 막대한 군사비가 드는 부담을 뒤로 미룬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레이건전략계획」은 소련이 SALTⅢ(3단계전략무기제한협정)협상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재어가면서 실질적 강화계획은 레이건행정부의 제2임기로 미룬 셈이다.

◇4인승의 發竇B1전폭기.

B1전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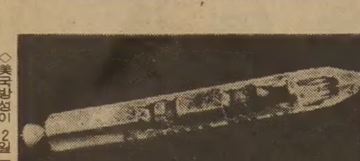
지난 30여년간 미공군전략사령부의 주장비였던 B52기에 대체하기위해 60년대초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4인승 저공침투전폭기. 지난 70년6월 국방성이 로크웰·인터내셔널社및 제너럴·일렉트릭社 각각 기체·엔진제작계약을 체결한후 그동안 총60억달러의 개발비가 투입된것으로 알려졌다. 74년12월23일 캘리포니아 팜데일기지에서 역사적인 처녀비행에 성공한 B1전폭기는 B52기보다 정교한 4개엔진의가변익제트기로음속의2배가넘는 마하2·1의 속도를낼수있다.

최고도는 1만5천2백40m 이며 불과 나무높이에서 시속 1천㎞의 속도로 저공비행함으로써 적의 레이다망을 피해 적진깊숙이 침투, 폭탄을 투하할수있다.

현재 생산된 B1기는 모두 4대. 캘리포니아州 사막에 있는 에드워즈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데 미공군은 카터前대통령이 77년6월 막대한 제작비를 이유로 생산계획을 보류하기전 이 폭격기를 2백44대 구입할 예정이었다.

B1기의 개발은 미국의 속적인 방위연구작업의 결과로서 지상기지유도탄및 잠수함발사유도탄과 함께 미국방체계의 3부작의 하나다.

뛰어난性能…多數目標同時파괴



◇美국방성이 2일 공개한 MX미사일.

MX미사일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망에 대항해 미국이 개발한 전략무기.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파괴할수있는 10개의 核탄두를 갖추고 있을 뿐아니라 명중률 파괴력면에서 현재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것으로 평가된다.

MX미사일의 최대속도 명중률 사정거리등은 비밀로되어있으나 사정거리가 9천6백㎞로 오차가 30m밖에 나질 않는 경이적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괴력면에서도 기존3개탄두 미니트먼Ⅲ의 약3배에 상당하는 TNT35만톤급 핵탄두 10개를 각각 갖추고있다. 따라서 최대파괴력은 TNT3백50만톤이나된다.

MX미사일의 총길이는 21·6m, 직경은 3m. 중량은 미니트먼Ⅱ나 Ⅲ의 2배가 넘는 87톤으로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를 병용, 사용한 4단계로키트로 추진된다. 3단계는 고체, 4단계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각핵탄두에는 전자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 4대회사가 작·생산한 MX미사일은 試作품일 뿐이며 첫발사 시험은 오는 83년1월 캘리포니아주의 밴덴버그공군기지에서 실시한후 86년부터 실전에 배치할계획으로 있다.

마하2·1速度…敵레이다無力化

日、對蘇경제制裁 완화

소노다示唆、美의 穀物수출再開지적

【東京2日UPI=聯合】 소노다·스나오(園田直) 일본외상은 2일 일본정부가 소련의 아프간침공에 항의하기위해 취한 對蘇경제제재조치의 완화가능성을 검토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소노다외상은 이날 미국정부가 이미 8백만톤의 곡물을 소련에 수출하기로 한데 이어 추가로 1천5백만톤의 곡물을 수출하기로했다는 보도에 대해 논평, 그같이 밝혔다.

소노다외상은 또 미국측이 對蘇경제제재조치를 완화했다고 지적하고 이사실은 일본정부도 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할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日本은 지난79년 소련이아프간을 침공한이후 미국·西歐각국과함께 신규차관의 제공중지등을 포함한 일련의對蘇경제제재조치를 단행했다.

東獨辯護士보겔 스파이交換殊勳

【본2日AP=聯合】 거물 간첩 컨터·기욤의 東獨송환을 실현시킨 1일의 東西獨스파이교환석방은 지금까지 1만6천여 東歐圈반체제인사들의 서방이주에 기여했던 東獨변호사 볼프강·보겔(56)의결정적인 역할에 의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보겔은 지난62년 소련영공에서 격추, 생포된 美U2기조종사 개리·파워즈와 소련거물간첩 루돌프·아벨의 교환석방을 실현시킴으로써 이방면의 권위자로부상하기시작했으며 이후東獨人의 서방…

◇"우산注意"포스터에 예수登場

會社에잡긴 예수의모습과 우산. 그리고 비. 승객들이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촉구하기위해 東京지하철당국은 이러한 포스터 몇천장을 지하철역마다 붙여놓고있다.
【東京5日AP=聯合】

波노조委員長 바웬사再選

強硬派후보제치고 55.2%획득

◇波勞組위원장에 再選된 바웬사. 레흐·바웬사가 1일·폴란드自由勞組 전국위원장에 재선된뒤 꽃다발을들고 환호에 답하고있다. 【그다니스크(폴란드)=日UPI=聯合】

"政治탈피 穩健지향"

共黨·勞組 세력균형強調

【그다니스크2日AP=聯合】 폴란드노동운동의 온건파지도자 레흐·바웬사가 2일 항도 그다니스크에서 속개된 제1차 勞組전국대회 2단계회의에서 강경파후보들을 여유있게 물리치고 2년임기의 솔리다르노스크 자유노조위원장에 再選됐다.

지난해 폴란드노동운동의 點火의 산파역을 맡았던 바웬사는 이날 올리비아체육관에서 전국대의원 8백51명이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비밀투표에서 7백89표의 총유효표중 4백62표(55·2%)를 획득했다.

바웬사의 승리는 당초예상보다 다소 낮은 표차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의 승리는 自由勞組가 정치적대결 자세를 탈피, 온건노선을 걷게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바웬사는 당선확정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自由勞組의 政黨化를 지양하고 東歐圈최초의 자유노조인 폴란드自由勞組가 온건노선을 걷도록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히했다.

蘇、核彈頭1천7백50개 西歐겨냥중

【런던2日UPI=聯合】 소련은현재 西歐를 겨냥한 총1천7백50개의 핵탄두를 적재한 장거리 핵미사일과 폭격기 9백대를 보유, 미국과 그맹방들에대해 4대1의 우세를보이고있다고 험프리·애트킨즈영국외무차관이 2일말했다.

애트킨즈차관은 이날 하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회의에서 소련이 『허위』숫자를 사용, 나토회원국들이 對蘇군사력우위를 추구하고 군축에는 관심이 없다는 허위선전을하고있다고 지적했다.

東獨, 이주및 兩獨정부의 고위급비밀접촉등을 주선하면서 지금까지 1만6천여 東歐圈반체제인사들의 서방이주를 실현시켰던인물로 알려져있다.

西獨국경관리들은 보겔이 1일 기욤인도현장에 나타났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 東獨지도층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있으며 철저한 공산주의…

對美 GSP수혜정지 品目 내년 축구공등 12개를추가

【뉴욕2日UPI=聯合】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은 2일 사우드·알·파이잘사우디아…

美·사우디外相회담

자로 알려진 그는 이밖에도 東獨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기까지했다.

라비아外相과 회담을갖고 AWACS(조기공중경보통제기)공급을 포함한 85억달러 어치의 對사우디무기일괄판매문제를 논의했다고 딘·피셔美국무성대변인이 밝혔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對美GSP(일반특혜관세) 수혜정지품목이 금년보다 크게 늘어날것으로 우려되고있다.

3일 貿公에따르면 지난7월현재 對美GSP 소진실적을 기준으로할때 내년에는 신규GSP 수혜정지품목이 10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수혜가 정지될 품목이 12개로 총22개품목이 GSP 혜택을 받지못하게 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품목별로 보면 82년도 신규GSP수혜정지 예상품목은 철반, 데이프레코더, 축구공, 핸서 글러브, 방제완구, 조개류조제품등이다.

領海침범 日船석방 罰金20萬원 물리고

【釜山=聯合】 속보=해경은 지난달 30일 우…

타나라 전관수역에서 조업하다 잡힌 일본 나가사끼(長崎)항 선적 삼치잡이어선 하마요시 마루(濱吉丸)(4·88톤·선장 야마시따·이쯔찌(山下水一·27)를 수산어업자원보호법위반혐의로 벌금 20만원을 물게하고 2일 하오5시께 일본으로 돌려보냈다.

세母女 自殺기도 어린 두딸만숨져

2일상오6시30분께 경기도 南陽州郡 和道面 磨石里 모란공원 묘역안에서 金孝八씨(40·水原市仁溪洞7612)의 부인 尹幸蘭씨(35)가 장녀 淑珉양(10) 2녀슬민양(8)과 함께 극약을 마시고 동반자살을 기도, 신음중인것을 관리인 柳明熙씨(36)가 발견, 병원에 옮겼으나 딸은 숨지고 尹씨는 중태다.

남편 金씨에 따르면 尹씨는 2일하오1시께 모란공원안에 있는 친정부모묘소에 성묘를 다녀오겠다며 두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평소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언니의 꾸중들은 女中生 자살

2일상오11시30분께 서울 冠岳區 奉天4洞 877의2 丁鶴秀씨(40·상업)의 둘째딸 愛蘭양(15·B여중3년)이 집에서 극약을 먹고 숨져있는것을 언니 美仙양(19·S여고3년)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의하면 1일하오 7시께 愛蘭양은 언니 美仙양의 앞을 가로막고 돈을 훔쳐 뒤밟았다고 꾸지람을 듣은 뒤 밖으로 나간뒤 돌아오지않아 옥상에올라가보니 울먹이고 있었는데 살충제 병이 놓여있었다는것.

20代 미장공 凶器로 殺人 일거리안줘 앙심

【釜山=聯合】 釜山海雲臺경찰서는 3일 미장공 徐根周씨(21·釜山市東萊區東上3洞1·4의72)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徐씨는 2일하오4시40분께 東萊區上3洞84의20 미미제과앞에서 미장일을 남에게준데앙심을품고 제과점주인 朴世範씨(21)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했다는것.

올림픽紀念鑄貨 제작 着手

한국은행 5백원짜리銅錢 발행도 검토

한국은행은 오는 88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를 기념하기위한 올림픽기념주화제작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현행지폐에 대신할 5백원짜리 동전발행을 검토중이다.

3일 한은 관계자는 과거 올림픽을 개최한 각국이 올림픽 기념주화를 발행했던 전례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기념주화를 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화폐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때 5백원짜리 동전을 발행할 필요성이 절실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5백원짜리 동전이 발행될경우 현행5백원짜리 지폐도 함께 통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백원짜리 동전을 발행하는 문제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法人기업 설비投資줄고 在庫증가로

資金사정 오히려緩和

지난상반기 법인기업의 계속적인 투자심리위축으로 설비부자가 감소, 제품재고의 증가세도 둔화돼 자금부족률이 51·3%로 크게 떨어진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1년 상반기중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경제 각부문에 이루어진 자금수급의 총규모가 9조7천2백45억원으로 작년동기의 26·4%보다 크게 둔화된 12·3%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자금수급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부자부진으로 법인기업의 자금사정은 오히려 완화되었으며 외부자금의존도가 작년동기의 76·1%에서 71·1%로 낮아졌다.

개인부문은 미약한 저축여력에도 불구, 주택건설을중심으로한 개인투자가 전년동기보다 64·2%나 줄어 자금잉여폭이 3천억원으로 확대됐고 이에따라 개인부문의 자금부족보전율이 작년동기의 5·5%에서 20·2%로 크게 늘어났다.

자금유통시장을 보면 OP(신종기업어음)의 매출과 기업자금사정완화의 여파로 법인기업에 대한 개인사채순증액이 償還超로 반전, 私債시장이 저조했던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을 통한 자금수급은 2조8백53억원으로 구속예금의 상계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적자보전을 위한 韓銀차입이 급증하고 정책금융도 늘어 작년동기보다 29·8%가 늘고 자금시장에서 차지한 비중도 작년동기 31·9%에서 38·2%로 올랐다.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수급은 상장법인의 주식, 사채발행이 저조, 작년동기보다 42·3%가 줄어든 3천1백30억원에 그쳐 침체를 반영했고 외자시장도 상업차관과 단기무역신용이 저조, 비중이 줄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올림픽교실 시리즈

표어 보다빠르게·높게·강하게 26年公認

「CITIUS ALTIUS FORTIUS」(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

이 올림픽표어는 프랑스의 디동神父가 고교교장으로 있을때 학생선수들에게준 교훈으로 알려져있다. 디동신부는 근대올림픽운동의 창시자 쿠베르탱남작의 은사였다. 쿠베르탱남작이 1894년부터 五輪표지밑에 표어로 넣은것이 시초였고 1926년 IOC총회서 공인됐다.

夏·冬季 4년1期로 6·12·13회는 못열어

올림픽은 4년마다개최하는데 이 4년간을 1올림피아드라고 한다. 올림피아드는 古代올림픽서 4년을 1期로한 회합의 명칭.

근대 올림픽서도 그 전통에따라 1896년의 제1회 대회를 起點으로하여 제2, 제3 올림피아드의 순번을 붙이게된다.

대회가 열리지않아도 올림피아드의 회수는 계속가산된다. 1차세계대전때 제6올림피아드, 2차대전때 제12, 13올림피아드가 열리지 않았지만 계속 대회회수에 가산되었다.

88년 서울서 열리는 올림픽대회의 공식명칭은 제24올림피아드(1988~1991)。

동계대회는 올림피아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울이라고 한다. 동계대회는 1924년 프랑스 샤모니서 열린 제1회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실제 대회를 개최한 회수로 가산해 나간다. 88년 캘가리(캐나다)서 열리는 동계올림픽대회는 15회가 된다.

競技종목 陸上·복싱·농구·카누등 總21種目

올림픽대회서는 총21개의 경기종목〈육상 조정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펜싱 축구 체조 역도 핸드볼 필드하키 유도 레슬링 수영(수구, 다이빙 포함) 근대5종, 승마 사격 양궁 배구 요트〉 가운데서 최소한 15개이상의 종목을 선택하도록 돼있다. 25개국이상에서 실시되고있는 경기에한해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시킬수있다. 88년 서울올림픽서는 20종목을 계획하고있다.

근대올림픽 부활초기에는 필수경기와 선택경기로 구분되어 실시됐으며 1952년에 「적어도 15개 경기를 행하도록」했다. 올림픽경기종목은 대회개최 4년전에 IOC에의해 결정된다.

聖火 大會때 가장 重要한 行事중의하나

올림픽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제9회대회(1928년·암스테르담)때 스타디움에 세운 탑에 불을 태우는 정도였다. 처음 선보였으나 당시에는 메인 그러나 1936년 베를린올림픽때 나치독일은 그…

選手村 8회 파리大會때부터 첫登場이용

1924년 파리서 열린 제8회 올림픽때 메인 스타디움 바에 1棟에 4명씩 수용할수 있는 가건물 50채를 지어 적은 인원이 묵은 집은 이때부터이다. 올림픽村의 이름이 붙은 것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때부터 영구적인 건물로 올림픽村을 갖게 되었다.

組織委 專門家·政·財界등 저명인사로構成

IOC는 올림픽개최도시를 결정하고난 다음 그나라 NOC에 대회조직을 위임하게 된다. 대회 개최권은 도시에 주어 지지만 대회조직을 맡게되는것은 개최도시가 아니고 그나라의 NOC이다. 앞으로 서울 올림픽을 치르는데 있어서는 조만간 구성될 OOC가 주도적인 임무를 맡게되며 대회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된다.

【體育部】

旗 쿠베르탱이 考案 7회때부터첫사용

올림픽기는 쿠베르탱이 고안하여 1914년 IOC창립20주년 기념식전(파리)서 처음 발표했다. 올림픽기가 처음 휘날린것은 1920년 앤트워프서열린 제7올림피아드 때부터. 올림픽기에는 백색바탕에 5개의 원이 엮어져있다. 빛깔은 청, 황, 흑, 녹, 적색의 순서다.

開催地 어떤理由로든 開催연기할수없어

IOC(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올림픽개최권을 위임받은 도시는 올림피아드의 제1년(첫해)에 대회를 열어야하며 어떤 이유로도 다음해로 연기할수 없다. 사정에 따라 최초 연도에 개최하지 못하게되면 올림피아드의 제전은 유산되며 선정된 도시의 권한도 취소된다. 따라서 서울올림픽은 반드시 88년에 개최돼야 한다.

施·賞 1位부터 6位까지 메달·상장수여

올림픽에서는 1위부터 6위까지의 개인 또는 팀을 표창한다. 개인종목에서는 1등상은 금메달과 상장, 2등상은 은메달과 상장, 3등상은 청동(靑銅)메달과 상장이다. 메달에는 경기명을 새겨넣고 목에걸고 뺄수있도록 리본또는 쇠줄에연결한다. 4~6위 선수에게는상장만수여된다. 1등메달은…

성화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 보통 2개를 운반하는데 제14회 런던대회때 희랍서 게릴라의 습격을 받아 꺼졌고 런던에 도착한 다음날 원인불명으로 또다시 꺼져 말썽을 빚었었다.

성화는 7개국을 거쳐 베를린까지 3천75㎞코스를 12일간에 걸쳐 1천5백여 주자에 의해 운반됐다. 개회식날 5천여명 합창단원이 부르는 「올림픽讚歌」속에 성화가 점화됐다.

올림픽의 위력을 전세계에 과시하기위해 고대까지 동원하여 색다른 연출을 시도, 고대와 현대올림픽정신을 연결하는 의도로 「성화 릴레이」에 착안했다. 고대올림픽의 발상지인 올림피아에서 엄숙한 의식을 베풀고 오목렌즈로 점화, 성화릴레이를 시작했다. 희랍서

北傀、平壤거주資格 강화 장애자·不純者·과부追放

거주이전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고있는 北傀는 최근 平壤을 「깨끗한 혁명의 수도」로 만든다는 구실아래 지체부자유자, 난장이등을 색출, 평北의 오지로 집단 강제추방하는가하면 유사시 주민동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成分불순계층」 심지어 과부까지 平壤시 밖으로 추방하는 한편 平壤거주주민의 자격조건을 대폭강화, 신체조건이 양호하고 정치사상적으로 신임할 수있는자들만을 선발, 平壤에 거주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平壤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北傀는 최근의 국민감시통과 관련한 주민의 외부경비와 관련, 平壤에 각종 도시계획을 위한 ……

회사업을 벌여왔는데 특히 지난79년 4월의 平壤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대비키위해 78년5월께부터 金正日의 주도하에 北傀 「政治保衛部」「社會安全部」 합동으로 이와같은 강화된 「조직」에 의한 平壤주민의 선별, 강제이주작업이 암암리에 수행된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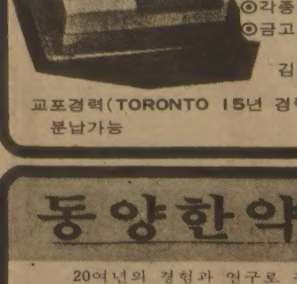
北傀는 이 강제이주작업이 노출될것을 우려, 주민감시통제기구인 「社會安全部」요원을 극비리에 동원, 야간에 실시했으며 주민대상자의 저항을 우려하는한편 기밀유지키위해 「政治保衛部」가 사업에 적극개입한것으로 밝혀졌다.

【서울=朴】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 ~ 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 ~ 2 : 00AM
(금, 토, 일 — 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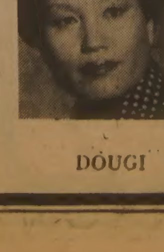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더 이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있음)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女大生살해범은 研修동기생"

事件15일만에 自白받아내

"情事요구거절 순간적絞殺"

K大生張慶洙

상경여대생 朴尙현양(21)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사건발생 15일만인 3일 朴양의 해외연수동기생 張慶洙군(21·K大3년)으로부터 범행을 자백받는데 성공, 張군을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했다. 경찰에 의하면 張군은 이날 사건당일 朴양을 살해한후 朴양이 끼고있던 14금반지 2개를 빼낸뒤 범행현장에서 집쪽으로 뛰어달아나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는 것인데 경찰은 이에따라 결정적인 물증이될 반지를 찾기위해 수사를 집중시키고 있으나 3일하오 현재 발견하지 못했다.

張군은 경찰조사에서 『18일하오9시30분께 朴양의집앞공중전화에서 지나가던 20대여자에게 부탁, 朴양을 불러낸뒤 택시로 사건현장까지 가부근에있는 三井莊여관에 들어가려했으나 朴양이 완강히거절하는 사람에 여관앞에서되돌아나와 근처 인조석 야적장옆 공터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곳에서 함께앉아 이야기를나누다가 몸을 요구했으나 朴양이계속거절, 순간적으로 목을 조르게 됐다』고 자백했다는것이다.

"빼은金반지2개 逃走중 분실 電話 지나던20代여인에 부탁"

張군은 朴양이 숨진것을 알자 당황한 나머지 강도살인으로 위장해야겠다고 생각, 朴양이 끼고있던 금반지2개를 빼내 주머니에 넣은뒤 손으로 인조석을 긁어 朴양의 몸에 덮은후 떨어져던 朴양의 샌들을 큰길로 나오며 한짝은 5m가량떨어진 풀섶에 던지고 나머지 한짝은 20m가량떨어진 길옆하수구 구멍에 버렸다는것。 이때가 밤12시께였다。

그뒤 張군은 3km쯤 떨어진 江南區驛院洞 新盤浦 한신5차아파트에있는 자기집까지 뛰어가 19일 새벽 0시30분께 집에 돌아왔다。張군이 도착했을때 여동생(19)이 문을 열어주었으며 집에 들어서자마자 세면장에서 손발을 씻은뒤 여동생에게『왜 소파에서 자느냐』고묻고『태연히 자기방에 들어가 고민하다 잠들었다』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19일아침에 잠이깬 張군은 전날밤 朴양의반지를 주머니에 넣었던것이 생각나 바지를 뒤졌으나 반지가 없어진것을 발견, 뛰어오는 도중에 없어진것으로생각했다는것이다.

경찰은 朴양의 시체가 발견된 21일부터 張군을 유력한 용의자로보고 신병을 확보한채 조사를 해왔다。

경찰이 張군을 가장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것은 張군이 지난7월13일부터 8월17일까지 미국U·C·L·A에 해외연수를 갔을때 알게된후부터 가깝게 지내 왔으며 ▲朴양이 살해된 지난달17일과 18일 양일간에걸쳐 계속 만났으며 ▲사건당일인 18일하오4시20분께도 K大앞 한일다방에서만나 학교와 張군의집으로 자리를옮겨가며 하오9시5분께까지 함께 있다가 朴양을 바래다주고 헤어졌다고 진술한점 ▲張군이 헤어진이후의 알리바이를 제대로 대지못하고있는점등때문이었다。

이에따라 경찰은 그동안張군의 신병을 계속확보, 범행을 추궁하는한편 朴양의 오른쪽 귀밑빵에있던 치흔에대한 2차례에걸친 감정결과張군의 치열과 같다는 사실을확인, 張군을 범인으로 추정, 계속조사해왔다。

경찰은또 張군이 처음전화를 부탁했던것으로 알려진 장미아파트앞 포장마차 주인 차고씨(여·45)가 張군을 지난달28일 대신시킨결과 정확히 기억은 할수 없으나 키가크고 흰갈색 T셔츠차림에 장발인점이 사건당일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청년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한사실을 확인, 심증을 굳힌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5일만에 해결된 이 사건도 앞서의 尹景花씨 사건때처럼 자백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 송치, 기소,재판과정에서 개운찮은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연행되는 張군 강남서 수사요원들에 의해 시내모처로 연행되는張慶洙군(화살표)。이날 경찰은 물증을 찾기위해 張군을 대동,사건현장을 답사했다。

大入考査성적 有效기간 연장

문교부 검토 慶南·全南지역 大學정원 增員

문교부는 대입학력고사 성적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3일 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자료에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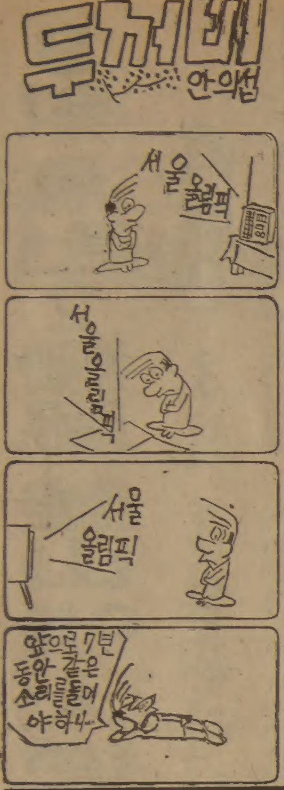
현행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성적은 시험을치른 당해학년도에 한해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데 만일 학력고사성적의 효력이 연장된다면 수험생들은 1회 대입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을 다음학년도까지 대입전형에 이용할수있게된다。

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대입고사성적을 수년동안 활용할수있게하는 경우 수험생들은 진학시기를 사정에따라 늦출수있고 재수의 부담을줄이는등 장점이 없는것은 아니나 대학선택을 더혼란스럽게 만드는등 부작용도 예상돼 최종결론까지는 상당한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교부는 국회제출자료에서 현재 고교및 대학진학률이 가장 낮은 慶南、全南지역에 고교및 대학정원을 집중 증원시키겠다고 밝히고 82학년도에 慶南4개고교(16학급)、全南3개고교(17학급)를 신설하는등 이지역에 모두 1백30학급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82학년도 대학정원조정에서도 慶南、全南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또 장기교육계획에서 오는86년까지 ▲국교2부제 수업은 3학년이상 완전해소하며 ▲과대규모 학교분리는 당초의 65학급이상 분리계획에서 수정, 71학급이상을 분리하고 ▲대학시설 보충은 현재의 45%에서 80%까지 달성시키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밖에 내년부터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에게도 학위를 부여하고 한국청소년연맹육성을 위해 청소년종합야영장 11개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청소년연맹육성10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發電所 발파작업…바윗덩이 날아 木工所덮쳐 셋死傷

【光州=聯】2일하오 6시20분께 전남靈光郡弘農面 발전소공사현장에서 발파작업중 날아온 바위가 근처에있는 목공휴식소를 덮쳐 목공 鄭龍勳씨(36·강원도橫城郡橫城邑邑下里)가 바위에맞아 그자리에서 숨지고 李明洙씨(40)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 함께 있다가 화를 면한 金世天씨(29)에 따르면 동료목공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른 몸통이만한 바위가 휴식소의 판자지붕을 뚫고 떨어져 밥상을 덮쳤다는것。

이날 사고는 발전소 기초정지작업을 하기위해 휴식소에서 1백여m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옆 암벽을 다이너마이트로 발파작업하다 일어났다。

경찰은 시공업체인 H건설 현장책임자를 불러 사고경위와 안전수칙사항 준수여부등을 조사하고 있다。

趙治勳3連勝

日名人位방어전 가또 막판에몰려

【東京=宋孝彬특파원】趙治勳名人은 지난1·2일양일간 시즈오껜(靜岡縣)이즈나가오까(伊豆長岡)에서 벌어진 제6기 名人戰(朝日新聞주최) 도전7번기 제3국에서 도전자 가또9단(加藤)을 눌러 파죽의 3연승을거두었다。

趙名人은 이로써 남은 4국중 1국만이겨도 名人位타이틀을 방어하게된다。

趙名人은 이번대국에서 白을 들고 執黑의 가또9단과 치열한 접전을 벌여, 제한시간9시간을 모두쓰는 초읽기에 몰리면서도 침착하게 대처, 2백43수만에 3집반의 승리를 거둔것이다。 제4국은 오는 14·15일 이틀간 삿뽀로에서 열린다。

제 6기 名人戰도전 7번기 제 3 국
總譜(1～243)
白 名人 趙治勳 (3승)
黑 도전자 加藤正夫9단 (3패)
(黑5호半공제, 제한시간각 9 시간)

경제계 기업·업종별 올림픽特需대비 長期 투자계획수립

경제계는 88년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기위해▲범국민적으로 구성될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민간기업이 참가하는 방안및▲올림픽특수붐에 대비한 기업별 업종별 장기투자계획과 이에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나갈방침이다。

8일 재계에따르면 全經聯을 중심으로한 경제단체들은 올림픽조직위원회를통해 대외계획에 소요되는 투자가운데 민간기업이 맡아야할 투자분야를 면밀히 검토, 이를 기업별·업종별로 조정하고 업체간의 과당경쟁이나 중복투자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역할을 떠맡을 계획이다.

碑閣서놀던 어린이 문기둥에깔려 壓死

【全州=聯】2일 하오4시30분께 全州市中華山洞2가 230 全州崔씨문중소유 비각 출입문에서 놀던 이 마을 金세정양(6·中華山洞2가 229)이 비각문기둥이 넘어지는 바람에 깔려숨졌다。

金양은 이날 같은 마을 柳방희양(9)등 어린이 3명과 함께 소꿉장난을 하다가 비각안으로 들어가기위해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순간 철제기둥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4千3百13돌 開天節

전국서 기념식, 다채로운 行事

3일은 제4천3백13주년 (단기4천3백14년)개천절。 이날 전국각시·도에서는 檀君의 개국을 기리는 기념식등 갖가지 행사가 베풀어졌다。

서울시는 이날상오10시 세종문화회관강당에서 3부요인을 비롯, 각계대표·시민·학생등 5천명이 참석한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한편 개천절경축 조찬기도법회가 3일상오8시 한얼교중앙회 주최로 세종홀에서열렸다。鄭泰秀문교부차관등각계인사 7백여명이 참석한이날 법회에서는 申正一한얼교종총 기념사에 이어 불교조계종총무원장 鄭暻宇스님 기독교 로회총회장 趙興濤목사 국회 문공위원장 楊柄宗의원등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顯正會(이사장 李熙昇)는 국조단군 社稷대제를 이날상오11시 사직공원뒤 단군성전에서 봉행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手勤文化祭개막 15일부터 3일간

【忠州=聯】제2회手勤文化祭가 오는15일부터 17일까지 3일동안 忠州시내공설운동장과 彈琴臺 어머니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우륵문화제는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가야금경연대회 牧溪別神祭 中原농악祭 그네타기 무용경연대회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뽀빠이李相瀧 효행소년위문

【原州】뽀빠이 李相瀧씨(한국어린이보호회장)가 2일 강원도橫城郡隅川面 오지마을인 德高국민학교를 찾아와 효행소년인 이학교5년 元東喆군(11)에게 장학금10만원과 뽀빠이T셔츠, 뽀빠이 헤드폰, 달려라뽀빠이등 선물한아름을 안겨주었다。

뽀빠이 李相瀧씨는 元군이 3년동안 아버지 元明淵씨(36)가 위장병에걸려 몸져누워있는것을 고쳐주기위해 집에서 4km떨어진 해발5백m의 德高山밑 藥效湯에서 3년동안 하루도 거르지않고 약수물을 떠다가 봉양, 위장병을 말끔히고쳐주었다는 효행에 감격, 이곳으로 달려온것.

지역豫備軍중대장 내년부터 사무관級 軍務官에

정부와 民正黨은 예비군의 지휘체계강화와 지역예비군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위한 방안으로 현재 비상근직인 지역예비군중대장을 5급상당(사무관급)軍務員으로 보임키로 합의했다。

李鍾灿 民正黨대변인은 3일『예비군 중대장의 처우개선안을 국방부및 정부예산당국과 합의했다』고 말하고 『예비군중대장들은 지금까지 매달 17만원정도의 보수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월35만원(수당·보너스 포함)선으로 처우가 개선되며 이밖에도 연금, 의료보험등의 각종 혜택도 받게된다』고 덧붙였다。

지역예비군중대장의 처우개선은내년4월부터실시된다.

流星의 賊

明暗⑲

<199>

李炳注作 李友範畵

이어 이영은

『손님으로 와서 남의 나라를 함부로 욕한다고 하는 것은 놈이 죽을 각오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 나로선 두가지의 뜻이 있다는 짐작을 한다』

고

『그 하나는 자기가죽음으로써 트집을만들어 일본이 쳐들어오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자기를 베어 없앨만한 기골있는 사나이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를 얕잡아 볼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 참이 아닌가 (하네)』

하며 침통한 얼굴을 했다。

『그렇지。나는 앞으로 어쩐지 큰 난리가 날것만 같은。 몇해 전에도 현소(玄蘇)란 일본 중놈이 우리나라를 밟아 갔는데 그 족적이 수상했거든。우연히 그자가 지낸 곳을 살펴볼 생각으로 된 것인데 한군데 빠짐없이 전진(戰陣)의 요소가 될만한 곳이었어。 속에 품은 저의가 없고서야 무엇때문에 평탄한 대로를 두고 요험(要險)을 두루 살폈겠는간』

『그래 하오네요』

『한데 이번에 온 글강광이란 놈의 태도도 이상해。 그 방자한 언동은 차치하고라도 이놈은 우리 군사의 내정, 우리 군사가 가지고 있는 군기(軍器)등을 살피고 있는 것 같은 눈치라。그러한 끝에 한 폭언이 너희들 나라는 망한다고 하는 것이었다니 예사로 보아넘길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사태를 위태롭게 보신다면 어찌하여 요로에 아뢰어 대비책을 강구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네도 알지 않는가。 조금이라도 귀에 익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평지조풍(平地造風)하여 인심을 선동하는 짓이라고 규탄이 빗발치듯 하는 세상인데 어찌 그런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임금께 상소를 해서라도』

『말 말게。조헌(趙憲)이 무엇때문에 득죄(得罪)했는질 아는가。내외의 정세가 위급하니 조정의 문란함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상소가 임금의 비위를 거슬러 놓았기 때문이네』

『그럼 임금님조차도』

『그리고 고대로 임금에겐 익은 감을 악였다고 해야지. 감이 익을 것이다. 하는 따위의 말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먹지 못할 감을 들먹여 먹고 싶은 마음을 충동만 해 놓는 일은 안된다 그 말이며, 바다를 건너오는 배가 언제 뱃머리를 돌릴지 모르는데 앞질러 말을 했다간 임금의 심기만 불안하게 한다 이말이네。그러니 난세의 신(臣)은 임금이 간청이 있고서야 비로소 입을 떼야 하는 것이어늘 자네들의 스승 율곡으로 말하면 임금이 묻기도 전에 도도천언(滔滔千言)하여 이욕고 실총(失寵)한 것이 아닌가』

『알뜻 하옵니다』

『그러나 저러나 환란은 미연에 막아야하는 것이어늘、북방에 호적의 침노가 있고 남방에 왜적의 흉안이 있는데도, 억지로 태평성대를 꾸며려고 하니 가탄가탄이로다』

『그건 그렇고 글강광이란 놈은 살려보내선 안되는 거 아닙니까』

흠계남이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3年만에 부활된 군민축제 충남牙山郡은 지난78년 중단된「군민의날」을 3년만에부활, 1일 溫陽邑溫泉국교에서 주민2만여명이 참가한가운데 풍년을기리는 축제를벌였다。【天安=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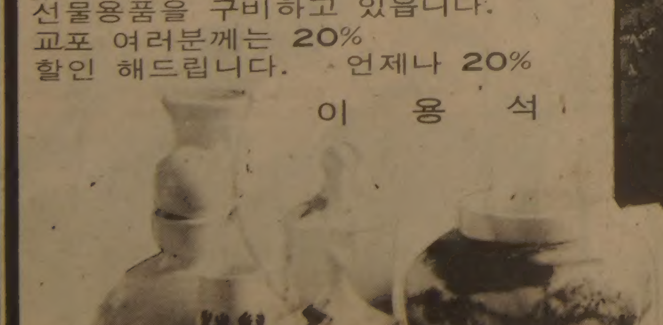
"제 3주년 기념특별 세일"

교민들께 염가로 할인봉사

Rasan Galleries LTD.

동양의 멋이 담긴 고급가구, 앤틱,
선물용품을 구비하고 있읍니다.
교포 여러분께는 20%
할인 해드립니다. 언제나 20%

이 용 석



* 취급품목

- 북경장미목 가구, Cabenet, Screen, Antigue가구.
- 북경 칠보공예품(Cloisonneware) 및 상아(IVORY), Jade조각품
- 각종 북경보석품(금, 은)
- 중국, 일본 골통품및 동양화
- Hand Painted Ceramic.
- 이조가구 복제품및 한국병풍

444 YONGE ST.
COLLEGE PARK SHOPS
595－0836

220 YONGE ST.
EATON CENTRE
"THE MEWS" 4 LEVEL
593－4208

9회 홈런2發로 釜山에 大逆轉勝 慶北

眞興은 3회 3점홈런쳐 邱商대파

황금사자기 高校야구

慶北高와 光州眞興高가 제35회황금사자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3일 서울운동장서벌어진 준결승전서 慶北高는 2점호머 2발로 9회초서 극적인 역전에성공했다. 8회까지 釜山高에 4-2로 뒤지고 있던 慶北은 9회초 마지막 공격서1死후 3번 洪淳鎬가 주자를 1루에 두고 釜山高의 좌완 에이스 金正洙을 강타, 좌월2점호머로 4-4의 동점을 만들었으며 뒤이어 2안타와 스퀴즈 플레이로 결승점을 만들고 2死후 7번 具潤이 또다시 우월2점호머를 터뜨려 7-4로 역전승, 금년시즌 세번째 타이틀을 눈앞에 두고있다.

77년 봉황대기 결승에 진출했던 眞興高는 3회말 吳貴燮의 3점홈런과 좌완에이스 金正洙의 역투로 강호大邱商을 6-1로 제압, 창단이래 두번째 결승에올랐다.

초반 3회의 연속득점으로 기세를 올렸던 釜山高는 慶北高의 9회초반격에 어처구니없이 역전패했다。

釜山은 1회말 시작되자마자 선두 1번 崔桂燁이 중전안타를 때리고 2번 尹熙政의 보내기 번트가 내야안타, 3번 朴勝俊의 보내기번트가 다시 야수 선택으로 처리되는 행운으로 無死만루를 이루고 4번 金成炫의 스퀴즈 번트로 1점을 올렸다. 2회말에는 7번 尹銅勳의 우중월 3루타와 9번 黃鍾萬의 2루앞 내야안타로 1점, 3회말에는 金成炫 6번 黃允泰의 중전안타와 포볼로 2점을 추가, 4-0으로 크게 리드했다.

眞興高는 3회말 선두9번 朴秉俊의 포볼, 1번 金欽鎬의 내야안타, 2번 金永勳의 포볼로 만루를이룬후 3번安同洙의 좌전적시타로 선제점을올리고 2루주자가 무리하게 홈인하다 아웃됐으나 4번 吳貴燮이 주자를일소하는 3점홈런을 터뜨려 승기를잡았다.

제8일준결승

경북고 100 020 005 — 7
부산고 112 000 000 — 4
▲홈런=洪淳鎬(9회·2점) 具潤(9회·2점·이상 경북)

대구상 000 100 000 — 1
진흥고 004 101 00× — 6
▲홈런=吳貴燮(3회·3점·진흥)

慶北·眞興 오늘 爭覇

◇타이이루는 2점홈런打者 慶北高의 3번 洪淳鎬가 9회초 공격 1死후 좌월 2점 호머로 4-4 타이 스코어를 만들고 홈인, 동료의 환영을 받고있다. 慶北은 9회서 다시 5점을 빼내 7-4로 역전승.

롯데、第一銀꺾어

實業야구 金漢根홈런날려

실업야구 후기2차리그 17일째 경기가 3일 仁川공설운동장서 열려 롯데는 8회초 金漢根의 결승2점홈런으로 第一銀行에 5-4로 역전승, 5승3패를기록했다. 第一銀行은 1승7패의 최하위를 마크하고있다.

한편 2일의 롯데-韓國化粧品전에선 롯데의주장 金成璞과 韓國化의 포수 沈載元이 충돌, 둘다 중상을입고 들것에 실려나갔다。

◇제7일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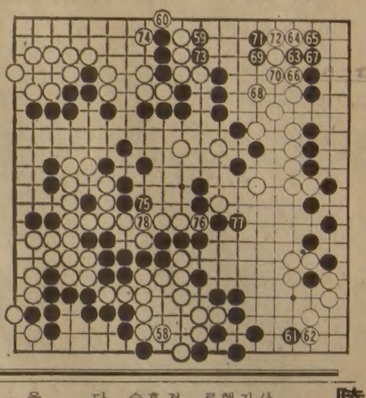
롯데(5승3패) 001 020 020 — 5
제일은행(1승7패) 400 000 000 — 4
▲홈런=金子烈(1회·3점·제일) 金漢根(8회·2점·롯데)

포철(2승6패) 500 006 00× — 11
성무(4승5패) 000 100 000 — 1
▲홈런=鄭赫鎭(6회2점) 宋鎭浩(6회3점·이상포철)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 第9譜 158—178 (각 5시간 덤 5집반)

白(4段) 鄭壽鉉〈1敗〉
黑(6段) 徐能旭〈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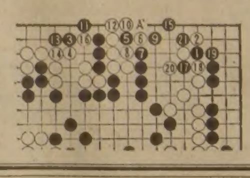


하변의 白이 58로 완생한데서 전체 형세를 살피면 白이 약간유망하다고 어림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黑은 5집반 덤이 힘겨운형세. 따라서 앞집이 어느정도로 굳어지느냐에 승부가 달렸다고 볼수있다.

이 중대한 끝내기 판국에서 黑59가 계산착오로 빚어낸 안일한 수단이었다. 이수로 참고처럼 黑1, 白2(실전보의 黑63, 白64)를 교환해놓고 黑3에 들여다보아 이하 黑15면 白16이 불가피하다. 이때 黑17이하 21까지 상귀루를 커다랗게 도려내었어야 역전승을 바라볼수 있었다는 국후검토의 중론이다. 참고도는 장차 黑선수로 잡아내게 되는것이다.

결과의 승부가 어찌되든간에 필소대담하기로 이름있는 徐6단인 까닭에 더한층 아쉽게 여겨지는 장면이지만 여하간 黑59는 가석한 기회일실.

黑、아까운機會 逸失



이때문에 白은 黑63에 대하여 마음놓고 64, 66을 결정지었을 뿐아니라 68로 白대마의 안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黑71만 해도 72자리를 끊어잡는것이 보통이다. 하기야 뒤늦게나마 우상白대마공격에 승부를 건이상 어쩔수 없었던모양이다.

黑71의 시점에서 徐6단은 黑59를 못내 뉘우쳤지만 白은 黑75때 76의 호수순을 거쳐 78에잇고 겨우 한시름놓는다. 하지만 물론 어디서 또 무서운 공격을 당할지. 여전히 긴장한표정. 【一凡】

아마資格 완화

두女委員선출 廣告출연 가능

IOC總會 폐막

【바덴바덴(西獨) 2日AP UPI=聯】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일 올림픽출전선수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있는 IOC헌장 제26조를 대폭완화시키는한편 IOC 87년사상 최초로 2명의 여성위원이 포함된 7명의 새 IOC위원을 선출하는등 IOC총회사상 전례없는 개혁을 단행하고 바덴바덴의 제84차 총회를 폐막했다.

환·안토니오·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총회폐막후 이번회의가 ▲여성IOC위원의 탄생▲IOC헌장 26조의 대폭완화▲예상을 뒤엎은 서울의 올림픽개최권획득등 IOC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IOC총회는 이날 스포츠와 관련해 금전적 혜택을 입은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할수 없도록 규정한 헌장제26조를 검토한 끝에 ▲아마선수로 해당경기단체를 통해 상업광고에 출연할수있도록 하고▲26개 국제경기단체가 독자적인 자격요건을 마련해 IOC의 사후승인을 받게한다는것등을 골자로한 부칙을 마련, 26조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그런데 오는 92년 하계올림픽은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바르셀로나 뉴델리등이경합을 벌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올림픽1世紀

서울大會 계기로본 人類의 祭典

<3>

有色民族의 대두

LA大會서 韓國人3명 처음 出戰

日코치때문에 마라톤 6·9위차지

黑人 오웬스는 베를린서 金4개 따내 「白人優位」 뒤엎어

1932년7월30일 한 여름의 햇살아래 美國에서는 두번째로 로스앤젤레스 제10회올림픽이 개막되었다. 처음으로 10만관중을 수용하는 대규모의 메인·스타디움이 문을 열었다.

47개국1천4백여명의 선수가 참석한 이 대회서는 특히 美國흑인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28년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던 美國의 첫올림픽에서는 미개인종으로 인체연구의 자료로서 볼모로 마련된「인류학의 날」이라는 실험무대에서 아메리카·인디언, 日本아이누등과 함께 모르모트구실을 감수해야했던 그들이었다.

로스앤젤레스대회는 비록 일장기를 달았으나 韓民族이 최초로 올림픽운동에 참가한 대회였다.

日本明治大에 재학중이던 權泰夏, 養正高普학생이던 金恩培는 마라톤, 黃乙秀는 복싱의 日本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국내최초의 올림피언이 되었다.

日本대표선발전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 金메달의 꿈에부풀었던 權泰夏와 金恩培는 日本인 코치겸 선수인 쓰다(津田)의 엉뚱한 작전지시로 레이스를 망치고 눈물을 쏟았다. 쓰다는 權·金두선수들을 이용하여 다른나라 선수들의 페이스를 흐트러놓고 자신이 독주할 계획이었다.

팀웍은 엉망으로 깨어지고 우승은 아르헨티나의 후안·카를로스·자바라에게 돌아갔다. 쓰다는 5위, 金恩培는 6위, 權泰夏는 9위에 그쳤다. 黃乙秀역시 초반에 탈락, 韓민족의 첫 올림픽도전은 비극적으로 끝났다.

1936년 8월1일 히틀러의 나치독일에서 제11회 올림픽이개막되었다. 세계의 지배를 꿈꾸던 히틀러의 대관식이라도 하듯 베를린·올림픽은 사상가장 웅장하고 거창한 의식이되었다. 베를린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에는 물론 10만관중을 수용하는 올림픽·스타디움 안팎으로 거대한 나치의 깃발이 펄럭이고 히틀러는 여기서 게르만민족과 나치독일의 위대함을 입증하려고했다. 사상 최초로 아테네로부터 유럽대륙을 홈으며 올림픽성화가 봉송되었다.

8월9일 하오3시 베를린 올림픽·스타디움의 마라톤 출발전에 孫基禎도 60여명의 외국선수와 함께 열을지어섰다. 가슴에는 日章旗를 달았으나 영원히 日本人과는 동화될수없는「朝鮮의 청년」이었다.

선두는 로스앤젤레스의스타 자바라였다. 거의 모든사람들이 그의 連覇를 예언했다. 24세의 완숙기에 접어든 마라토너 자바라는 1시간만에 18㎞를주파, 단독질주했다.

그러나 반환점을 돌아나오는 자바라로부터 孫基禎은 거친숨결을 엿들었다. 자바라는 방향감각조차 흔들리고 있었다. 25㎞지점을 지나며 孫基禎은 자바라를 제쳤다. 결승점을 12㎞남긴 30㎞지점 비스마르크언덕에서 로스앤젤레스의 우승자 자바라는 균형을 잃고 무너져 비극적인 레이스를 끝냈다.

길게 깔린 그림자로 외로움을 달래며 결승점 올림픽·스타디움에 들어선 孫基禎은 10만관중의 열광어린 함성으로 고막이 터질듯했다. 2시간29분19초2。세계마라톤에서 처음 30분대의 벽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시상대에 오른 우승자 孫基禎은 가슴으로 울었다。1912년 新義州에서 태어난 孫基禎은 어릴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다. 점원일、인쇄공일을 하면서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대선수의 꿈을위해 16살의 나이에 日本고학길을、20살에 명문 養正高普에 입학、만학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孫基禎의 올림픽제패는 日帝下의 우리민족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고 민족혼을 일깨워주었다. 당시의 東亞日報는 孫基禎의 가슴에서 日帝旗를 지워내 정간되기도했다。그러나 베를린의 스타디움에도 올림픽기록집에도 孫基禎은 아직도 日本의 마라톤우승자로 기록되고 있다。

마라톤의 孫基禎과 함께 베를린·올림픽은 또하나의 달리기영웅을 탄생시켰다。「검은」탄환 제시·오엔즈」다。

순수 아리안의 혈통을 자랑하던 독일인들은 美國의 흑인선수들을「흑인보조부대」라고 조롱했다。그러나 제시·오엔즈는 히틀러가 총애하던 루즈·롱을 제치고 넓이뛰기에서 우승, 독일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놓았으며 1백m와 2백m、4백m계주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모두 4개의 金메달을 따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검은탄환」제시·오엔즈의 2백m출발자세。베를린영웅들의 모습은 여걸 레니·리펜슈탈의 기록영화「민족의 제전」에 잘나타나있다。

오엔즈는 1913년 앨라배마州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7째아이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노예에서 풀려난지 얼마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우연히 육상코치의 눈에 띄게된 오엔즈는 그 코치가도저히 믿기 어려운 스피드로 달려 본격적인 육상단거리 선수로서의 수업을 받게됐다.

올림픽 한해전인 35년 오하이오주립대학 2년생이던 그는 미시간에서 벌어진 대학육상대회서 1시간내에 세계신기록 3개、타이기록 1개를 수립, 육상스타가 되었다。

그러나 올림픽 승리의 영예도 사회의 인종적 차별을 깨뜨리지는 못했다。히틀러도 백악관도 오엔즈와의 악수를 거부했다。美國의 백인들은 올림픽 4冠王의 환영을 빙자해 그를 짐승처럼 말과 경주시키기도 했다。그는 여전히 배고픈 흑인이었다。때로는 달리기 시범으로 끼니를 이어야했다。

40년이 지난 1976년 그는 비로소 포드 대통령의 초대로 백악관을 방문했다。만년까지 美國흑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힘쓰던 그는 지난해 3월31일 폐암으로 66세를 일기로 숨졌다。【方錫瑚기자】

한국、前半서 3골

靑少年축구 伊에 崔淳鎬가2골

【델리=千一平특파원】 한국청소년대표팀은 3일하오 이곳 올림픽 파크경기장서 벌어진 제3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예선B조 첫경기서 전반 맹공끝에 주장인 장신FW 崔淳鎬가 2골(12분·30분) 郭星浩가 1골을 넣어 전반을 압도했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제발、선생님···배가고파 죽겠읍니다요" "그럼 햄버거를 하나 만들어 주겠소"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았소···나무도 많고···창문도 많았소···"
"모든게 똑같단 말이오?"
"그런데···그때 햄버거맛이 나았던것같군요"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한국일보

陸士、럭비 優勝

3軍士官校 경기

국군의날기념·제28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이틀째경기가 3일 서울운동장에서속행、陸士가 럭비에서 2승으로 우승이 확정됐다。

이날 陸士는 空士와 맞서 전반에서 6-6으로 비긴후 후반서 점수를쌓아 21-9로 승리했다。

陸士는 럭비에서 4連覇했다。

◇제2일전적
▲럭비
육사 21 (15-3 6-6) 9 공사
(2승) (1패)

「鄭進基 言論財團」 任員선정 5일發足

每日經濟新聞社주식의80%를 기본재산으로 하는「鄭進基言論文化財團」이 文化公報部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모두 마치고 5일 정식발족된다。

이 재단은 지난 7월17일 별세한 每日經濟新聞의 고鄭進基사주의 遺志에 따라 설립되는데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李瑞檜(每日經濟新聞社감사)▲이사=鄭炳度(每日經濟新聞社 대표이사)▲〃李瑞河(同전무이사)▲〃梁興模(成大교수·前言論人)▲〃柳琦粹(中小企協中央會長·前국회의원)▲〃尹壬述(韓國言論硏究院長)▲〃李春九(前뉴질랜드대사)▲〃鄭×人(慶熙大교수)▲〃崔永喆(국회의원)▲감사=宋泰鎬(변호사)▲〃金在泰(공인회계사)

Elizabeth Arden LONDON · NEW YORK · PARIS
Estée Lauder

LEVI'S여자용
SALE $14.95
REG. $29.95

LONDON FOG®
springs into the 8l's with fashion.
뉴컬렉션 다량입하!!
염가판매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찾아보세요.
• 피부미용, 화장법, 화장품 선택요령에 대한상담을 친절히 응해 드리고 있읍니다.
● 고급화장품, 고급양품, 고급시계, 각종전자제품, 고급의류, 비타민등.

미도파 MasterCard VISA
454 BLOOR ST.W. TORONTO (B)536-1692 (R)245-3536
후편에 항시 준비되어있는 무료주차장을이용하십시요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밤11시 이후 호텔에서 청소하실분 구함
오후2시 이후 연락바람
☎ : 425-1836 MR. 정

공장에서 생산부분에 경험있는 분 구함 :
직접 내방 바람.
DORCHESTER ELECTRONIC
40 FINA CRES.
(QEW & 427 AREA)

도나스 가게에서 5일간 밤일하실 풀타임
일할 여자분 구함(밤11시~아침9시)
☎ : 284-9325 스카보로지역

야채가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함
☎ 690-6572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2819 미스타 윙

스토아 파타임헬퍼구함(남자분)
스카보로지역
☎ : 267-0847

ROBERTSON MOTORS(G. M.)
올스모빌·시보레 딜러
한국인 자동차 세일즈 맨 구함
● 경험이 없을시는 트레이닝이 가능함.
● 주100달러(차 판매에 관계없이)지급.
● 자세한 내용은 General Manager Bob Walsh 에게 문의바람. ☎ : 466-1131

재봉사(SERGERS)구함
COROMATION DRESS. LTD.
49 SPANIDA AVE. 4th FLOOR.
☎ : 367-1414

두 아이와 가사일 도울분 구함 :
오후6시~9시 연락바람
☎ : 439-0825 미세스 최

사람을 찾습니다.
김경남(Kyung Nam Kim)
Date of Birth : -Nov-28-1950
(1950.11.28일생)
연락처 : 문덕례(Duk Rae Moon)
☎ : 744-2082

가게 헬퍼가 필요하세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매매및 양도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이주관계로 가구 팝니다 :
가구일체, 피아노, 플루트등
☎ 241-6733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다목적 용도를 지닌 빌딩 세일
● 극장, 음악당, 체육관및 다른 큰방등을 포함.
● 다운타운에서 가까움 YANKA REALTY INC.
연락처 : 537-4156
TOM SZYMANSKI

매 매
365일 컨비니언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PARKING하기 쉬운 중심가 에 위치. 시설완비 되있음. 다운페이 $20000에 단돈 $39500의 좋은 기회 L. VAN LIESHOUT R. E. LTD..
☎ : B) 705-457-2414.
705-457-2460 (Mike)
705-457-2071(Larry)
Haliburton Ont.

벡커 프렌차이스 매매 :
좋은 비지네스 직접내방원함(FINCH & BIRTCH-MOUNT)(스카보로지역) 335 Glendower Circuit

매매 :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DELE. 버라이어티 스토아 :
& 비지네스 세일(영어로 문의)
☎ : 535-3271

LOOK-SQUARE FOOT당 오직 2달러
컨버니언스 스토아 PLUS. 1년이 안된 건물내에 있음. 아주 긴 리스이고 독립적이며 실내장치가 잘 되있고 장래성이 좋음.
KEN MARESCAUX
A. E. LEPAGE(ONT.)LTD.,
☎ : 492-7333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CHINA SHOP
건강상 이유로 매각코자함. 가격절하 Royal Doulton 프랜차이즈 상점임. 미국과 거래량 많고 발전의 여지 충분. 살림집 붙어있고 하이웨이변에 위치. 린지(Lindsay)북쪽 관광지대. $85,000+스탁
MARJ TRIPP부동산회사
☎ : 1-(705) 438-3155

가정용 DRY GOODS
= 옷·신발류등 판매 =
상점면적 2,200 sq. ft. 고객은 나이 불문. 2 베드룸이 2개 있는 인컴 아파트. 발전하는 지역의 요지에 위치. 토론토의 북동쪽 50마일 심코호수변.
$89,900+스탁. ☎ : 1-(705) 438-3155
MARJ TRIPP 부동산회사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일본식 식당과 SHOGUN라운지 매매 :
일본식 식당 : 85좌석, 라운지 : 105좌석.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개업한지 3개월 되었음.
동업자나 사실분은 Correct Call로 연락바람.
HALIFAX, N. S.
☎ : 집(902) 443-5789, 식당 : (902) 429-6155
라운지 : (902) 429-6955. MR. KIM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사정으로 급매 합니다.
주매상 $2,900, 렌트 $300,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2988 LAKESHORE BLVD. W.

개인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PRIVATE HARDWARE STORE FOR SALE)
좋은 자리에 있음. ASKING $41,000.
더 문의 하실분은 791-8771, 9시에서 6시(월~토)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 : 791-8771 해밀톤

매매
79년 캐디락(Fleetwo) A급.
Low Milage 4Door Full Option ☎ : 759-3923

성업중인 벡커 스토아 팝니다 :
1987 YONGE ST.
☎ : 484-0921

급매 : 개인사정으로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저렴한 가격으로 팔겠음.
☎ : 691-5360

콘도미늄 매매 또는 렌트 : 3베드룸, 1½목욕탕, 2car 파킹장소, 렌트 $750, 매매 $54,000, 오후2시 이후 전화요망. ☎ : 421-6016 MR. MASUDA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라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하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ROGERS GARAGE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순 **뜸**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기 타

SINGER
● 전화주문 받습니다. ● 모든 종류 미싱수리, ●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SOMÉ JEWELLERY 쏘메쎄라
●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집·방세·하숙

세놓습니다 : 2426 ST. CLAIR W. TOR. 1000 sq. ft. Store와 Full Basement. 2 베드룸 Apt. 스토아 : $400, 아파트 : $350
☎ : 635-7936(B), 221-9818(R)

돌개 바람 불다 ⑲

趙善作 金光培 畵 <218>

그것은 앞으로 다섯시간뒤에 출발하는 급행열차의 티킷이었다. 나는 그들이 대합실을나가 어디로 갈까 찾아보려다 그만두었다. 역 구내에서 나는 다섯시간을 기다렸다. 구내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식사를하고 코피한잔을 마셨을뿐 나는 대합실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다섯시간은 퍽 길고 지리했다. 그동안 나는 별의별 공상들을 다했는데, 그것들중의 하나는 그들이 나의추적을 눈치채고 나를 떼놓기위해서 짐짓 서울행 열차표를 사는체 한것이 아닌가 하는것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망상에 지나지않았고, 열차 출발시각이 임박하자 그들은 정확히 대합실에 나타났던것이다.

나는 그들이 개찰구를 빠져나갈 때까지 대합실 한쪽구석에 서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개찰구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나도 개찰구로 빠져나갔다. 플랫폼에서 나는 멀리 일행의 뒷모습을 붙잡았다. 그들과 나는 각각 별개의 열차에 올랐다. 밤새도록 달려서 이튿날 아침 서울역에 도착하는 열차로 승객들은 열차가 떠나가자 잠을 자두려고 서둘렀다.

그러나 나는 잠들수가 없었다. 그들이 혹시 맥주를 마시기위해 식당칸으로 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식당칸으로 가자면 내 좌석이 지정되어 있는 열차를 통과해야 될는지도 모른다는 염려따위가 내게서 안식(安息)을 빼앗아간 것이다.

그들에게 덜미를 잡히는경우 내게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행에서 떠난 나는 여자와 서울로 되돌아 가게 되어 있었고, 지금서울로 열차에 몸을 싣고있는 것이었다. 열차 시간을 지체된 것은 어디까지나 내 자유의사에 속하는 일일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그들에게 덜미를 잡히고 싶지 않았으며, 식당칸의 연결 상태, 그들과 나와의 거리 따위를 확인해두기 위해 열차 안을 헤집고 다녔다.

식당칸은 내 좌석이 있는 열차의 바로 앞 쪽이었다. 그들이 탄 열차는 식당칸을 지나 두 칸을 건너편이었다. 그들이 식당칸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내 좌석 옆을 통과할 필요는 없었다. 게다가 그들이 탄 칸은 침대칸인 모양으로, 식당칸을지나 첫번째 연결된 열차의 내부를 유리창너머로 들여다본 나는 그것이 내 좌석이 있는 객차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본 것이다. 열차의 침대칸 따위는 나로서는 처음 구경하는 풍경이었다. 긴 고비좁은 복도의 양쪽으로 천장까지 닿는 휘장이 쳐져 있었다.

아침은 나는 그쪽에서 내자리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서울역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붙잡게 될 때까지 내게 아무런 위험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쉽게 안식에 빠지지는 못했다. 부산 여행이 너무 싱겁게 끝나 버린 사실에 대한 미진한 느낌과, 아울러 서울로 되돌아 갔을때 닥쳐올 J씨등 여기까지 일이 내 괴이한 의식을 자꾸만 후벼왔던 것이다. 아마 J씨는 행방불명이 된 나를 찾아 이곳저곳 뒤져 다녔을 것이며, 그가 퍼뜨리고 다닌 소문 때문에 어쩌면 나는 걷잡을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도 곧 J씨의 이야기에 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다시는 그의앞에 얼굴을 들고 나다닐수 없는 여자로 전락하게 될것이다. 나는 서울로 되돌아가게 되는일이 두려웠다. 이 짧은 밤의 여행이 나는 마지 못해 압송당하고 있는 범인처럼 거북스럽게 느껴졌으며, 할수만 있다면 그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탈출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데 이런 내 엉뚱한 희망이 거짓말처럼 이루어진것이다.

중앙 AUTO-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렇습니다

—토론토한인교계의 사이비종교단체 비판을 보고—

송 순 태

■ 비판받는 사람들의 마음

요즘 토론토 한국인 기독교계에서는 사이비종교, 혹은 기독교 이단에 대한 비판이 자주 언급되고 있읍니다. 한동안 모 신문에 이 문제가 연재되기도 했으며 TV방송시간의 話題가 되기도 하고, 또 단행본 책자로 엮어져 출판되기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어느 개인 신앙인의 관심이나 연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각 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인 「토론토한인교역자회의」의 「사이비종교단체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연구회는 이 비판이 「교역을 담당한 목사님들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양손에 들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아울러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일반적으로 사이비 종교나 기독교 이단에 대한 개념의 정의나, 교리적 차이의 비교연구, 혹은 그러한 신앙의 위험한 결과등을 알려주는 교육적이고 예방적인 의미의 선을 넘어서 특정 교단의 이름을 공공연히 나열하고 이 교단들은 사이비 종교이고, 기독교 이단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간의 의문을 안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로, 특정교단의 이름을 공공연히 내 놓고 비판하게 될 때 그 비판은 비판의도의 객관성을 의심받게 되고 감정의 개입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 알거니와 교단끼리 정통이나 이단을 주장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정통성이 얻어지거나 이단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너무 리얼한 비판(?)은 상대방의 비판을 받을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싸움하는 인상외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둘째로, 한 교단이 다른 교단을 공공연히 비판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울타리의 양은 지키고, 남의 울타리의 양은 죽이는 의도를 노출하지 않나 하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양심일 수 없읍니다. 아무리 남보기에 어리석은 신앙행위라도 적어도 신앙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남의 신앙을 공공연히 비판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세째로, 공공연한 타교단의 비판은 그 속에 일종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선교적 차원에서도 비 그리스도인들에게 덕되지 못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 비판이 참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각기교회 내에서 언급되고 분석되고 비판되어도 충분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매스콤을 통한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신자의 마음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째로, 타 교단을 공공연히 비판하는 자세는 외국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의 마음에 분열의식을 무의식 중에나마 주게 되는 것은 좋은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교의 이상은 「연합」에 있지 「분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이비종교 비판에 특정교단의 이름을 공공연히 밝히고 그것을 매스콤에 자주 등장시키는 자세는 교포사회에 화목보다는 불화의 씨앗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필자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토론토한인교회의 일개 평신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에 옳다, 그르다 하고 나설 인격이나, 교양이나, 신학적 배경을 지니지 못했읍니다. 뿐만 아니고 필자 자신이 어려서부터 받은 기독교적 가르침을 따라서도 목사님들의 비판을 비판으로 맞설 의도가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내가 자라온 교회, 내가 은혜받은 교회, 나에게 신앙의 길을 걷도록 키워주고 격려해 주고 가르쳐준 교회가 별 특정한 이유없이 이단이나 사이비종교로 취급되어 매스콤에서 매도될 때, 필자뿐만 아니고, 비난 받는 전체 교우가 마음에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파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쓰라린 체험을 면할 수 없읍니다. 아울러 필자는 「사이비 종교단체연구회」에서 이러한 비판을 준비하신 목사님들이 진정으로 「양 떼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을 또한 버릴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양 떼에 대한 진정한 애정에서라면, 그것이 자기 양 떼이건 남의 양 떼이건 상관없이 두번, 세번 반복해서 비판하고, 망신을 시키고, 모욕을 주는 자세는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이러한 반복된 비판을 보면서, 비단 「사이비종교단체 연구회」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을 반박하거나 비난할 의사는 없다하더라도, 이 반복된 비판으로 교포사회에 생겨난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나 감정을 좀 풀어보고자하는 욕구를 금할 수 없읍니다. 이런 욕구는 인간이 지닌 자기방어본능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해 주실만한 일이라고 믿읍니다.

오늘 여기 간단히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신조와 세계적 사업현황과 신자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읍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먼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신도(Seventh-Day Adventists)들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성육신, 그의 대속의 죽음, 기적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께서 온전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그의 재림만이 지구의 종말적인 격변이 다아오는 이때,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신도들은 우리가 개신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법왕의 세계적 권한을 거절하며 종교개혁의 원칙,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義), 신성의 삼위,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것, 성령의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우월성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보수적 개신교도로서 하나님의 창조, 홍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축자 연감설, 즉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글자 한자한자에 영감을 주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영감은 선지자들의 마음에 작용했지 손에 작용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왜 별개의 교회를 조직했는가 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중세시대의 흑암기, 미신과 무지로 부터 진리를 보전한 위대한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시대의 초기에 지녔던 순결을 잃고, 부패, 타락하고 많은 이교적 관습이 교회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읍니다(예컨대 부활절 토끼, 헬로우한, 크리스마스—해의 탄생을 경배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대표자로서 인간을 숭배하는 일등).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더럽혀진 교회에서 순결한 진리를 찾아내는데 저마다 공헌하였으며, 이러한 순결진리는 계속 발굴되어야 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몇세기 동안 개신교도들은 이 발굴을 중단했다고 우리는 봅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이 중단된 순결한 진리의 발굴을 계속해야 한다고 믿으며, 사도시대의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의 탄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교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신조를 믿고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을 지키므로 어떤 모양으로 라도 의에 이른다는 견해를 배격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도덕심을 존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2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않고 믿음으로 되는줄 우리가 인정하는가」하고 31절에 가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고 하였읍니다.

신약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보건대 사람이 구원을 얻게되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와 사랑으로 존중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준수문제

재림신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려한다는 표현 중의하나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도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쓰고, 살인하거나, 도둑질 하거나 간음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다만 재림신도들이 안식일만 중요시하는 것처럼 인상받는 것은 안식일 준수만이 외적인 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명의 조건들은 신자 저마다의 생활속에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독 안식일만 두드러져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과 당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에겐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고(눅4：16, 눅23：56, 행13：14, 42, 44, 행16：13, 행17：1, 2), 이 안식일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경에 그 준수가 전혀 요청되고 있지 않는 일요일 예배를 이상히 생각합니다.

■재림신도들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읍니다

재림신도들은 1863년 미국 동북부에 있는 수백명의 개신교회 신자들이 모여 그 출발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처음에 연약했던 교회는 불과 백년만에 세계 전체의 90%를 넘는 국가에 퍼져 있으며, 침례교인만 350만을 넘었고 출석교인수는 1천만을 넘고 있읍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① 개신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은 국가에 퍼진 교회이고,
② 제일많은 선교사들(3,200명) 선교지에 보내고 있는 교회이며
③ 해외 의료선교사로서 가장 많은 의사를(279명) 내보내고 있는 교회이며
④ 세계 각국에 400개의 종합병원과 진료소를 운영하는 교회이며
⑤ 75개의 대학과 종합대학, 645개의 중고등학교, 4,000개의 국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이며
⑥ 51개의 출판사를 갖고 있으며
⑦ 4,000개 이상의 방송, 텔레비젼, 성경통신학교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관들과 인력을 통해서 인류복지와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읍니다.

■재림신도들의 생활태도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생활이 선교」라는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신도들의 생활은 상당한 절제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신자의 생활을 최대한으로 현실생활에 구현하고자 애씁니다. 성실히 예배일을 준수하고,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고 착한 이웃으로서 모든 거래관계에 깨끗하려고 애씁니다.

또 재림신자들은 육체적 순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술, 담배, 마약을 멀리하고 부정하고 비건강적인 식품을 가려서 깨끗한 식생활을 하려고 애씁니다. 또 재림신자들은 소란하고 방탕스런 유흥가 출입을 삼가하고, 보는 것, 입는 것, 참여하는 행위를 삼가하므로 도덕적, 정신적 손실을 최대한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이웃에게 알리고 나누어 주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렌 G·화잇 여사에 대한 시비

어떤 이들은 「엘렌 G·화잇」여사가 재림교단의 교주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재림교회가 「화잇」이라는 여자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진정으로 그 진상을 알아보려는 성의도 없으면서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억측에 불과합니다. 재림신자들중에 화잇 여사를 교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더구나 그를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더욱 아무도 없읍니다.

그러나 「엘렌 G·화잇」여사는 재림운동의 선구자중의 한분으로서 그가 남긴 저서들은 재림신자들의 생활에 큰 귀감이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화잇 여사의 저서들은 아무런 이단설을 주장한 적도 없고 교인들을 현혹하지도 않읍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안내자가 되고 있음을 그의 저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긍정하고 있읍니다. 그의 저서들이 영감적 기별로 가득차 있음을 편견없이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다른 분들이 화잇 부인의 존재를 재림교회가 이단교회라는 증거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읍니다.

■글을 끝내면서

필자는 이글을 신문사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단교회 비판을 신문사가 실어주셨다면 비판 받은 교인의 작은 변명도 실어주실 아량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연이 많지만은 이정도 분량의 원고도 실어주신다면 사실은 과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자가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타교파를 사이비종교니, 기독교 이단이니 하면서 비판하고 매도하는 대신에 그 시간과 그 재정과 그 노력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토론토 한국인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일에 바쳐졌으면 하고 바라는 점입니다.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거든 먼저 네 눈속의 들보를 빼라」고 교훈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은 정통이나 이단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항시 自己內部에 있을 뿐이지 外部나 타인에게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필자의 글 속에서 혹시 무식한 소치로 여러 목사님들께나 그리스도인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려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실수이지 의도적이 아님을 밝혀두고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토론토 한인교역자회와 토론토한인교우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풍요하게 임재하시길 진정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주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교회 소개나 성경연구 서적을 보내드리겠읍니다.

THE SEVENTH-DAY ADVENTIST KOREAN CHURCH
255 FINCH AVE. WEST WILLOWDALE, ONT. M2R 1M8

토론토한인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